

온누리교회는 하용조 목사가
1985년 10월 6일 창립한 사도
행전적 '바로 그 교회'입니다.

온누리신문

- 성경 중심의 교회
- 복음 중심의 교회
- 선교 중심의 교회
- 긍휼을 베푸는 교회
- 그리스도 문화를 심는 교회

창간 1994년 4월 3일

news.onnuri.org

2020년 7월 26일(주일) 제1305호

“사랑하는 부모님께 행복을 드립니다”

온라인 부모맞춤전도집회 ‘행복드림콘서트’
7월 27일까지 통합데스크 및 홈페이지 신청

온라인 부모맞춤전도집회 행복드림콘서트 참가자
를 오는 7월 27일까지 모집한다.

주일(토, 일)에는 안내데스크, 평일에는 온누리교회
홈페이지(www.onnuri.org)에서 접수를 받는다. 선착
순 마감되기 때문에 온라인 부모맞춤전도집회에서
부모를 전도하고 싶은 성도들은 신청을 서둘러야 한
다. 현재(7월 24일)까지 82명이 신청했다.

온라인 부모맞춤전도집회 행복드림콘서트 참가신
청을 하면 전도사역본부에서 5일 이내에 접수확인
문자메시지를 보내준다. 문자메시지를 받으면 반드
시 카카오톡 플러스친구에서 ‘행복드림2020’을 검
색한 다음 친구추가를 해야 한다. 온라인 부모맞춤
전도집회 안내, 유튜브 및 웨비나 URL 등을 카카오톡
플러스친구를 통해서만 공지하기 때문이다.

온라인 부모맞춤전도집회 행복드림콘서트 신청자
들을 위한 화상기도모임도 두 차례 열린다. 8월 3일
(월)과 10일(월) 진행되는 화상기도모임에서는 전도
대상자를 위한 중보기도뿐만 아니라 세부 프로그램
안내, 사전준비 사항 등도 알려준다. 온라인 부모맞춤
전도집회 행복드림콘서트 신청자들은 반드시 참석
해야 한다.

온라인 부모맞춤전도집회 행복드림콘서트는 8월
24일(월) 오후 8시 온라인으로 막 오른다. 유튜브 라
이브로 진행되는 집회에서는 이재훈 담임목사가 메
시지를 선포하고, 가수 이무송, 노사연, 신인선, 색소
폰 이광재 등이 게스트로 출연한다.

9월 27일(주일)에는 온라인 부모맞춤전도집회 행



복드림콘서트에서 결신한 부모들을 위한 세례교육
및 세례식이 거행된다. 오후 7시 서빙고 온누리교회
본당(열린새신자예배)에서 세례를 준다.

문의: 02-3215-3214, 010-9646-4214

홈페이지: www.onnuri.org

/ 정현주 기자 joo@onnuri.org



7월 27~31일
故 하용조 목사 추모기간

새벽기도회 ‘십자가와 복음 시리즈’
설교영상 상영

온누리교회가 하용조 목사 소천 9주기(8월 2일)를 앞두고 7월 27
일부터 7월 31일까지를 ‘하용조 목사 추모기간’으로 정하고 하용조
목사의 비전과 꿈을 기리기로 했다.

하용조 목사 추모기간 동안 국내 온누리교회 10개 캠퍼스 새벽예배
(월~금)에서는 하용조 목사가 생전에 설교한 ‘십자가와 복음 시리즈’
영상이 상영된다.

주제는 7월 27일(월) ‘십자가는 기독교의 중심이다’, 28일(화) ‘십자
가의 복음과 죄 용서’, 29일(수) ‘십자가의 복음과 승리’, 30일(목) ‘십
자가의 복음과 4가지 그림 언어’, 31일(금) ‘복음과 그리스도인의 삶’
이다.

서빙고와 양재 온누리교회 새벽예배는 1부 오전 5시 20분, 2부 오
전 6시 30분, 나머지 캠퍼스는 자체적으로 정해진 시간에 각 캠퍼스
본당에서 드린다.

하용조 목사는 지난 2011년 8월 2일 향년 65세를 일기로 하나님 품
에 안겼다. 1976년 연예인교회 개척, 1980년 12월 두란노서원 창립,
1985년 10월 온누리교회 개척, 2005년 CGNTV 설립 등을 통하여 한
평생 사도행전적 바로 그 교회를 꿈꾸며 헌신했다. 저서로는 〈나는
선교에 목숨을 걸었다〉, 〈사도행전적 교회를 꿈꾼다〉, 〈목숨을 건 일
본사랑 러브소나타〉 등 90여 권이 있다.

/ 정현주 기자

‘2020 에스라 프로젝트’ 한창

8월 30일까지 각 공동체 총무에게 필사지 제출

온누리공동체 전체가 성경을 필
사하는 ‘2020 에스라 프로젝트’가
한창이다. 8월 30일까지 자신이 맡
은 범위(분량)를 필사한 다음 필사
지를 각 공동체 총무에게 제출하면
된다. 공동체 소속이 안 된 성도는
각 캠퍼스 목회행정실에 필사지를
제출하면 된다.

2020 에스라 프로젝트는 온누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마음
과 뜻을 발견하고, 성도 개인의 영
성관리 및 공동체 연합을 위하여 실

시하는 성경필사 프로젝트다. 국내
외 온누리교회 모든 공동체별로 성
경 1권(구약 39권, 신약 27권, 총
1189장)을 필사한다. 교역자(전임,
파트)와 장로들은 각각 성경 1권 전
체를 필사한다. 완성된 필사지는 10
월 4일 온누리교회 창립기념주일에
전시할 예정이다.

문의: 02-3215-3744

02-570-7356

각 캠퍼스 목회행정실

/ 정현주 기자

대학청년부 ‘미션 커넥트(Mission Connect)’

선교사 블레싱, 선교사 자녀 튜터링(Tutoring) 프로그램

대학청년부가 비대면 여름사역 ‘미션 커넥트(Mission
Connect)’를 실시한다. 미션 커넥트는 코로나19로 인해
취소된 여름 아웃리치 대신 현지 선교사들과 온라인으로
소통하는 사역이다.

선교사들과 온라인으로 교제하는 ‘블레싱 커넥트
(Blessing Connect)’와 선교사 자녀들에게 온라인 교육
을 제공하는 ‘튜터링 커넥트(Tutoring Connect)’가 진행
된다. 블레싱 커넥트는 현지 사역자들과 온라인(google

meet, youtube, Zoom 등)으로 교제하고, 중보기도하고,
축복하는 프로그램이다. 튜터링 커넥트는 선교사 자녀들
에게 온라인으로 국어, 영어, 수학, 한글, 한국사 등을 가
르쳐주는 프로그램이다.

미션 커넥트는 대학청년부 공동체별로 진행된다. 대상
은 몽골, 인도네시아, 러시아, 일본, 라오스, 터키 등 2019
년 대학청년부 해외 아웃리치 지역 선교사들과 선교사
자녀들이다.

/ 홍하영 기자

류현모 교수의 '세계관 묵상'

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가?



류현모 교수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동성애는 거짓을 통해 인정받았다. 1948년 알프레드 킨제이는 록펠러 재단의 지원을 받아 <남성의 성적행동>, 1953년 <여성의 성적행동>을 출판하였다. 이 책에서 남성의 13%, 여성의 7%가 동성애

자라고 주장하였다. 1990년 주디스 라이스만이 <킨제이의 성과 사기: 사람들을 세뇌시키다>라는 책으로 킨제이의 의도적 조작을 알릴 때까지 무려 40년 동안 킨제이의 주장은 잘못된 성 지식의 근거가 되었다.

킨제이는 자기가 조사한 표본에 남성매춘부, 소아애호자, 성범죄자, 노출증 환자, 교도소 수감자 등 성도착자의 비율이 높은 집단을 전체의 1/4이나 차지하도록 의도적으로 많이 포함시켰다. 이를 통해 미국인의 10%가 동성애자라는 통계수치를 만들어 내었다. 이 수치를 근거로 동성애 운동가들은 1970~80년대 미국의 정책을 친동성애적으로 전환하고 유지하는 계기를 만든다. 킨제이의 자료에 의심을 가지게 된 여러 국가들이 1990년대 중후반에 이르러서야 대규모 조사를 실시하였다. 그리고 동성애자의 비

율이 유럽과 미주에서 0.8%~1.4%, 양성애자를 포함시켜도 2.4% 이하로 밝혀졌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유경험자까지 모두 포함한다 해도 2% 이하로 추정된다. 동성애를 허용하는 입법이나 정책수립의 배경에 거짓된 통계수치와 동성애가 유전된다는 거짓된 논문이 있었다.

그렇다면 동성애에 대한 기독교인의 태도는 어떠해야 할까? 성경에서 동성애는 가증한 죄라 규정하고 돌로 치라고 명한 명백한 죄이다. 그러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실정법상 죄가 아니다. 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포스트모던 시대에는 그들을 비난할 합리적인 윤리적 기준도 없다. 우리 역시 죄인이기에 그들을 비난할 자격이 없다. 오직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 의뢰할 수밖에 없는데 그분의 해결방법은 무엇일까? 그들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이다. 그들을 진정으로 사랑하기 위해 성경이 가르치는 성에 대해서, 동성애의 현실에 대해서 더 잘 알아야 한다.

성경은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고 기록한다. 부부에게 주변의 모든 사람, 심지어 부모들까지도 배제된 오직 두 사람만의 배타적이고 친밀한 관계를 명령하신 것이다. 또 “그러즉 이제 둘

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고 기록한다. 이는 영속적 부부관계를 통해 가정에 안정성을 부여하신 것이다. 그 가정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는 문화명령을 내리신 것이다. 성경은 분명히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합인 결혼을 통해 세상을 채우고 다스리라고 명령하신다.

동성애자는 행복한가? 동성애 커플들도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친밀감과 사랑는 관계를 갈망한다. 하지만 대부분은 동성애 관계에서 그것을 찾지 못한다. 게이 커플은 두 사람 사이에 정서적 신뢰가 있는 중에도 외도를 지속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156쌍의 게이 커플 중 7쌍만이 성적인 정절을 지킨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성 부부처럼 독점적 사랑의 관계를 갈망함에도 불구하고 자극적인 성적 즐거움을 위해 비인격적인 성관계에 상대방을 이용한다. 그 관계는 점점 강압적이 되고, 과도한 성행위에 몰두하다 보면 1~3년 내에 대부분의 관계가 파탄난다. 때문에 동성애자는 나이가 들면 가족도 없고, 성적인 매력도 없어져서 어디에서도 환영받지 못한다. 그 결과 남성 이성애자에 비해 게이는 알코올 중독 2배 이상, 자살 시도는 3배 이상 많다. AIDS를 비롯한 여러 성병과 암으로 인해 수명이 25~30년 짧다.

동성애는 성 중독의 일종이다. 모든 중독에 등급이 있는 것 같이 이 중독에도 오래 머물러 있을수록 빠져 나오기 힘들다. 유전적이지 아니므로 치료가 가능하다. 정신과 치료를 통해 30~80% 정도가 치유된다. 미국에서는 1973년 이전까지 치료를 했고, 우리나라도 최근까지 치료를 하였다. 미국의 NARTH(동성애를 치료해야 한다고 믿는 정신과 의사들의 연합) 회원들은 치료를 원하는 동성애자들을 꾸준히 치료하고 있다.

동성애는 다른 중독과 마찬가지로 순간의 짧고 강렬한 쾌락과 점점 더 강한 것을 반복적으로 찾는 중독 뒤에 평생에 걸친 길고 긴 고통이 따른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으로 동성애 행위를 보호하는 것은 마약, 도박, 알코올 같은 중독행위를 장려하는 것과 다를 바 없는 무책임한 짓이다. 성의 결정은 수정 순간에 일어나고 인간의 힘으로는 결코 바꿀 수 없다. 우리는 탕자를 바라보는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려야 한다. 제발 그 길로 가지 않기를, 비록 갔더라도 다시 돌아오기를.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우리 자녀들이 타락으로 가는 문은 열려졌고, 아버지께 돌아오는 길은 막아 버리는 법이다. 이것이 우리가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입법을 힘을 다해 반대하는 이유다.

묵상: 동성애자를 사랑으로 설득할 수 있는 논리가 나에게 있는가?

온 세상을 향한 ‘클린 플랫폼’ CGNTV

DC(During Corona)시대의 미디어 활용법

지금은 누구나 쉽게 영상을 만들 수 있는 시대다. 과거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상당한 시간 상대적으로 미디어에 덜 관심이 있었던 50~60대를 중심으로 ‘디지털 시니어’가 확장되고 있다. ‘밀레니얼세대(1980년대~2000년대 출생해 각종 소셜미디어를 경험한 세대)’, ‘디지털 네이티브(디지털 기기를 자유자재로 활용하는 세대)’를 넘어 모든 세대를 향한 콘텐츠 전쟁이 시작된 것이다. 하지만 미디어 리터러시(Media Literacy) 능력이 확보되지 않을 땐 그 ‘소스’의 진실성을 구분하기 어렵다. 자신도 모르게 가짜 뉴스(Fake News), 왜곡된 콘텐츠로 생각과 삶이 오염된다. 확장편향이 공고해져 미디어의 공공성을 잃어버린다. 특히 코로나19 바이러스 팬데믹으로 촉진된 DC(During Corona) 시대에는 디지털 언어가 구성하는 정보를 분석할 수 있는 미디어 리터러시 능력이 더욱 필요해졌다. 미디어 리터러시란 개인이 여러 대중 매체에서 전달되는 정보들을 단순히 받아들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비판적인 시각으로 정보들을 해석하고 창의적으로 검토해 재창조하는 능력을 의미한다.

세계 콘텐츠의 생산, 소비, 유통 방식을 보면 우리는 이미 뉴노멀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OTT 서비스 시장의 최강자 ‘넷플릭스’는 이용자의 세 가지 욕구, 즉 모바일 단말기를 적극 이용하는 ‘이동성 욕구’, 케이블 TV보다 저렴한 비용을 선호하는 ‘가치 욕구’, 원하는 시간에 시청할 수 있는 ‘자율성 욕구’를 충족시켰다. 그 결과 ‘코드커팅(Code Cutting)’이 일어났다. 코드커팅이란 케이블 TV, 위성 TV 등을 이용했던 것에서 별도의 선이 필요 없는 온라인 기반 동영상 서비스로 이동해가는 시청형태를 의미한다. 문제는 시청 패턴에 따른 추천 알고리즘이 좋은 면도 있지만, 편향된 콘텐츠 소비 촉진으로 이어져 확장편향을 일으키는 오류 또한 간과할 수 없다는 것이다. 아울러 누구나 쉽게 영상을 만들어 시장에 내놓기에 조화수를 노린 선정성, 자극성을 피할 수 없다. 특히 사용자가 만일 기독교 콘텐츠를 필요로 할 때 추천 시스템에 따라 정통 기독교 콘텐츠 외에도 이단, 사이비는 물론 잘못된 자유주의신학을 전하는 콘텐츠를 접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농후하다. 왜곡된 신앙을 넘어 반기독교적 정서를 확산시킬 수 있는 개연성도 있다.

“향후 10년 동안 무엇이 변할지 보다는 무엇이 변하지 않을지 고민한다.”

아마존의 창업자 제프 베조스의 말이다. 트랜드보다 변하지 않을 가치가 중요하다는 의미다. CGNTV는 변하지 않는 실재인 복음을 새로운 플랫폼에 재미, 감동, 위로, 경험, 정보, 보상이라는 6대 요소를 변화무쌍하게 담아내 변하지 않을 가치를 추구하는 이들에게 전달하고자 한다. 내년 1월 출시 예정인 CGNTV의 미디어라이브러리 1차 버전은 상호작용성(Interactivity), 다양성(Diversity), 비동시성(Asynchronism), 개인화(Personalization)의 특성을 갖고 이용자들이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콘텐츠를 경험, 검증하고 관련 정보를 공유할 수 있게 할 것이다. 플랫폼과 콘텐츠의 무한경쟁시대에서 CGNTV는 아직 가보지 않은 길, 완전히 다른 길을 가고자 한다. 개인 맞춤을 넘어 가정, 기관, 교회 맞춤과 양육, 성장과 나눔을 통해 한국 교회와 전 세계(한인디아스

포라)교회, 세계 곳곳에서 사역 중인 선교기관 및 선교사들을 위해 맞춤 서비스를 제공할 뿐 아니라 가정, 교회 및 공동체들이 개별적으로 디자인할 수 있는 플랫폼을 소유할 수 있는 토대를 놓고자 한다. 신앙성장의 영역, 단계 점검을 통한 지정의(知情意, Intellect, Emotion, Volition) 맞춤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AI 개인 맞춤 추천, 교회 양육 커리큘럼 및 학적관리(LMS) 제공, 각 교회별 자체 영상 업로드 콘텐츠 섹션 및 예배 라이브 지원 등이 포함된 기독교콘텐츠 허브가 되고자 한다. 성경적 세계관에 따라 제작된 순수 복음 콘텐츠와 일상, 일터, 가정, 학교 등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양질의 콘텐츠를 제작하고 허입해 온 세상을 향한 ‘클린 플랫폼’이 되고자 한다. DC시대의 미디어 활용법은 이곳에서 또 다르게 시작될 것이다.



함태경 제작본부장
(CGNTV)



주일강단



김홍주 목사

하나님은 우리를 겉모습으로 구별하거나 차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거듭난 사람인지 거듭나지 않은 사람인지를 가지고 구별하십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있는지 성령이 계시지 않는지를 보십니다. 니고데모는 모든 것을 소유했지만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바리새와 사람들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유대 공회 지도자였습니다. 그가 밤에 예수를 찾아와 물었습니다. ‘랍비여, 우리는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님이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시지 않는다면 선생님이 행하신 그런 표적들을 아무도 행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1~2절).

니고데모는 바리새와 사람입니다. 또 이스라엘의 선생이었습니다. 그리고 유대 공회 지도자였습니다. 니고데모는 사회적으로나 종교적으로 성공한 사람이었고, 지성인이었고, 모든 사람이 부러워할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왜 예수를 찾아왔을까요?

니고데모는 예수님께서 행하는 것들을 살펴본 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표적을 행할 리가 없다”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이라고 인정했습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궁금했고, 진지한 대화를 나눠 보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는 겸손하고, 공손하고, 영적인 분별력이 있는 사람인데 예수님께서 니고데모를 그렇게 높게 평가하시는 것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

“예수께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말한다. 누구든지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3절).

니고데모는 어디를 가나 존경받고, 존중받고, 높임을 받고, 대접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몸에 배어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올 때도 자기를 내려놓는 게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의 최고의 관심사였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메시지의 핵심도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하고, 누려야 하는 나라입니다. 우리가 소망해야 할 나라이고, 반드시 들어가야 될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는 상태를 의미했습니다.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은 수백 년 동안 이방인들의 통치를 받았습니다. 그들은 이민족의 통치 아래 비참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스스로를 포로상태에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의 소원은 이방인의 통치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장차 메시아를 보내주셔서 모든 이방 민족들의 통치를 깨뜨리고, 이스라엘 민족의 나라를 세워 줄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인들은 늘 그 나라를 소망하고, 기다리고,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메시아가 하루 속히 와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를 기다렸습니다. 니고데모도 유대인들의 지도자로서 언제 로마의 통치가 끝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인가에 관심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의 기대와 전혀 다르게 “누구든지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아리송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통치를 의미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말한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육체에서 난 것은 육체이고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다.’”(5~6절).

이 말씀은 성령으로 위로부터 다시 태어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 외적인 하나님의 나라뿐만 아니라 우리 내면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적이 있었습니다.

“내가 너희 위에 깨끗한 물을 뿌릴 것이니 너희는 깨끗해질 것이다. 내가 너희의 모든 더러움과 너희의 모든 우상들로부터 너희를 깨끗하게 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고 너희 안에 새로운 영을 줄 것이다. 내가 너희 육신으로부터 돌과 같이 굳은 마음을 없애고 너희에게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겔 36:25~26).

그 물은 새로운 영, 성령입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시고, 우리의 돌과 같이 굳은 마음을 없애고, 우리에게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심령 가운데 하나님을 감각할 수 있는 새로운 마음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살아있는 마음, 새로운 마음, 새로운 영, 새로운 생명을 부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 마음의 주인이 바뀌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그리고 거듭남이 필요한 이유

“이와 같이 자녀들은 피와 살을 함께 나눈 사람들이므로 그 자신도 이와 같이 그들과 함께 속하셨습니다. 이는 죽음으로 인해 죽음의 권세를 가진 자, 곧 마귀를 멸하시기 위함이며 또한 죽음이 두려워 평생 노예로 매여 사는 사람들을 풀어 주시기 위함입니다”(히 2:14~15).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분명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가짜 주인,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죽음이 두려워 평생 노예로 매여 사는 사람들을 풀어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죄 문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심각합니다. 죄는 우리의 영혼을 죽이는 독이고, 가장 강력한 바이러스와 같습니다. 죄는 하나님을 떠나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반항하게 만들고, 마귀의 종노릇을 하게 만듭니다. 결국은 거룩하고 의로우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유발하게 됩니다. 문제는 우리 스스로는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야 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거듭남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우리 안에 본질적인 마음의 변화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위로부터 임하는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세상에서 많은 것들을 성취하고 위대한 일을 행한다 해도 그것이 우리의 본성을 변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생명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니고데모는 도덕적으로는 흠이 없고, 종교적으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산 경건한 사람이었지만, 마음의 문제, 죄의 문제는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니고데모의 더 심각한 문제는 마음에 가짜 주인, 우상과 사탄의 통치였습니다. 이것을 끝내는 것이 더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시 태어나야 한다’라고 말한 것을 너희는 이상히 여기지 말라. 바람은 불고 싶은 대로 분다. 너는 그 소리를 들지만 바람이 어디에서 오는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다.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도 모두 이와 같다”(7~8절).

바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재합니다. 성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우리 마음 안에서 일하시고 계십니다. 변화의 역사를 만들어 놓습니다. 성령께서는 일하고 계시고, 지금도 많은 사람들 가운데 거듭남의 역사를 행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전에는 영적인 일에 전혀 무관심했고,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이 없었던 사람들의 삶의 방향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니고데모와 같이 당대 최고의 지성인이자 가장 경건한 종교적인 사람조차도 성령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깨달을 수 없습니다.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하늘에서 내려온 사람, 곧 인자 외에는 하늘로 올라간 사람이 없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어 올린 것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 그것은 그를 믿는 사람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민 13~15).

예수님을 예표하는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올려져야 합니다. 그러면 그를 믿는 사람마다 영생을 얻게 될 것입니다. 뱀뱀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심판과 정죄를 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고, 누구든지 이 죄를 깨닫고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는 사람마다 영생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값비싼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일반적인 은혜입니다. 우리에게는 믿기만 하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봐야만 살 수 있는 존재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철저한 자기 인식이고, 현실에 대한 인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16절).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은 대가 없이 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엄청난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자기 외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주신 그 사랑, 측량할 수 없는 사랑, 이해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내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믿기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사랑은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사랑이 아닙니다. 받으면 좋고 못 받으면 그만인 사랑이 아닙니다. 반드시 받아야 하는 사랑입니다. 영생이 걸려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이 죽음에서 생명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통치에서 하나님의 통치로 옮겨지는 영원한 생명이 결정되는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거듭남의 비밀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기를 축원합니다.

/ 정리 김남원 부장 one@onnuri.o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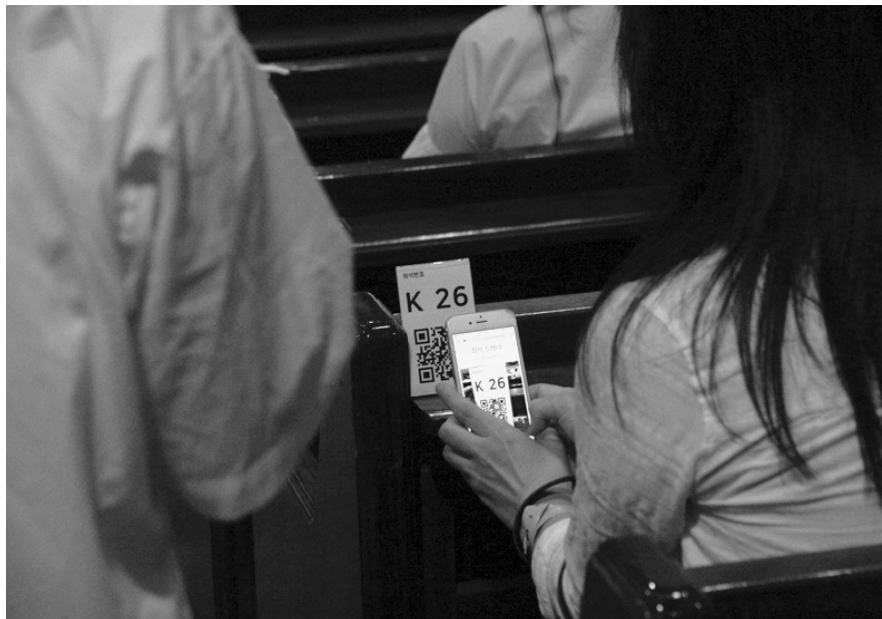
코로나19, 이렇게 극복하고 있습니다

온누리교회 방역시스템

온누리교회는 안심비(安心比)가 탁월한 교회다. 최선의 방역과 감염병 예방조치를 철저히 실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안심비는 코로나19 이후 가성비(가격대비 성능), 가심비(가격대비 만족도)와 더불어 주목받고 있는 용어다. 본래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평가를 할 때 쓰이는 용어인데, 안전한 공간을 설명할 때도 더러 사용하기도 한다. 말 그대로 철저한 방역으로 인해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현저하게 낮은 공간을 의미한다.

최근 코로나19 대규모 감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교회에 대한 정부의 제재가 이어지면서 자칫 교회를 위협한 공간으로 여길 수 있는데 결코 그렇지 않다. 온누리교회는 정부의 지침을 철저히 따르는 것은 물론이고, 한 걸음 더 나아가 교회를 가장 안전한 공간으로 만들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온누리교회 방역 책임자들은 ‘어떻게 하면 교회가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공간이 될 수 있을지’를 날마다 고심하고 있다. 그 열심과 헌신 덕분에 온누리교회 방역시스템에는 물설 틈이 없다.

온누리교회는 올해 1월부터 코로나19 감염 예방 조치를 실시했다. 설 명절을 앞두고 중국 우한에서 코로나19 확산 소식을 접한 즉시 감염예방 활동을 시작했다. 성도들이 예배당에 입장하면서 소독을 할 수 있도록 손소독제를 배포했고, 주기적으로 교회 소독을 했다. 국내



성도들의 예배참석 기록은 QR코드와 수기 기록으로 보관된다.

에서도 코로나19가 확산 되면서부터는 정부에서 발표한 방역지침을 철저히 따르고 있다. 매주 금요일 정기적으로 교회 건물 전체를 소독하고 있고, 예배와 모임 이후에는 수시로 예배당을 소독하고 있다. 또한 체온감지기, 분사형 소독기, 항균필름 등 코로나19 감염예방에 도움이 되는 시스템과 물품을 아낌없이 도입해서 교회 곳곳에 비치했다. 최근에는 얼굴

인식형 체온감지기를 도입해서 체온측정과 출입관리를 동시에 하고 있다.

유홍렬 부장(온누리선교재단)은 “교회가 가장 안전한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방역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 “온누리교회가 더 안전한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성도님들이 적극적으로 방역활동에 협조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온누리교회 방역의 최우선 과제는 성도들이 안전하게 예배를 드리도록 돕는 것이다. 만에 하나 문제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서 이동기록과 출입기록을 보관하는 것도 잊지 않고 있다. 온누리교회 예배예약시스템으로 예배당 예배 예약을 하는 순간부터 교회 입장 바코드, 좌석 QR코드까지 기록을 모두 보관하고 있다. QR코드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성도들을 위한 수기 기록도 철저히 작성 및 보관하고 있다. 성도들의 개인 신상은 방역을 위해 필요할 경우에 서버관리자만 확인할 수 있다.

채민 팀장(IT지원팀장)은 “출입기록은 가장 안전하게 보관하고 있고, 일정 시기가 지나면 폐기하고 있다”면서 “조금 불편하더라도 모두의 안전을 위한 지름길이라고 생각하고 적극 협조해 달라”고 부탁했다.

온누리교회 예배예약시스템을 이용해서 예배당 예배를 예약하고, 개인 위생수칙을 철저히 지키고, 교회의 방역 시스템을 잘 따른다면 그 어느 곳보다 안전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다. 이것이 온누리교회 방역시스템의 원칙이자 철칙이다.

강찬석 장로(서대문공동체)는 “온누리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정부와 교회의 방역지침에 순종하면서 교회가 가장 안전한 곳을 세상에 보여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 김영선 기자 k4458@onnuri.org

양지 온누리교회 차세대

아이들이 보기 쉽고, 재미있는 영상예배

코로나19로 인해 생긴 변화를 피부로 느끼는 이들이 있다면 바로 주일학교와 차세대들일 것이다.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는 물론이고 교회에 오가는 것이 더 이상 자유롭지 않게 됐다. 아직도 차세대 예배당 예배가 온전하게 재개되지 못하면서 온누리교회 차세대사역본부와 각 캠퍼스 차세대 목회자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어떻게 하면 차세대들이 더욱 풍성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지 다양한 고민과 노력, 시도를 하고 있다.

양지 온누리교회 차세대도 마찬가지다. 차세대 예배당 예배가 재개되지 못하고, 소그룹 성경공부 또한 할 수 없는 상황을 손 놓고 지켜만 보고 있을 수 없어서 묘책을 찾았다. 차세대들을 위한 양질의 영상예배 콘텐츠를 제작해서 제공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양지 온누리교회 차세대 김지선 전도사와 코치, 교사진이 차세대를 위한 영상예배 콘텐츠를 제작하기 위하여 땀을 흘렸다.

“벌써 반년 가까이 차세대들을 만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차세대들이 영상예배를 집중해서 드리는 모습을 볼 때마다 보람을 느낍니다. 아이들이 영상예배를 무척 좋아한다고 해서 기쁘고 행복합니다.”



김지선 전도사가 예수님 분장을 한 이지혜 코치를 촬영하고 있다.

영상예배를 제작하고 있는 부서 대부분이 그렇겠지만 양지 온누리교회 차세대 김지선 전도사와 코치, 교사들도 올해 처음으로 영상예배를 제작했다. 물론 지난해 말부터 영상 콘텐츠를 활성화 시키자는 이재훈 담임목사의 권면에 따라 영상 콘텐츠 제작을 위한 청사진을 그리고는 있었지만 실전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영상제작 관련해서는 문외한들이었지

만 조금씩 힘을 보탰다. 양지 파워웨임을 섬기고 있는 조성훈 간사(Acts29비전빌리지)는 프로그램 세팅을 도왔다. ‘크로마키 기법(두 가지 화면을 따로 촬영해서 한 화면으로 만드는 합성기법)’을 도입하기도 하고, 교사와 코치들이 영상예배 출연진으로 등장하기도 했다. 율동을 담당하는 교사도 있고, 어느 영상에서는 교사들이 예수 분장을 하고 출연했다.

양지 온누리교회 차세대는 아이들이 보기 쉽고, 재미있는 영상예배를 제작해서 제공하고 있다. 또한 차세대사역본부에서 활발하게 제공하고 있는 콘텐츠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영상도 제작하고 있다.

양지 온누리교회 김지선 전도사와 코치, 교사들이 꼭 지키는 원칙이 하나 있다. 시끌벅적하던 차세대들의 웃음소리를 기억하며 영상예배를 제작하는 것이다. 차세대들을 향한 사랑과 헌신으로 제작한 영상예배에 대한 반응이 뜨겁다. 해외 선교사 자녀들이 양지 온누리교회 차세대에서 제작한 영상예배가 너무 흥미 있다고 인사를 해오는 경우가 많다. 그때가 가장 신이 나고 힘이 솟는다고 한다.

양지 온누리교회 차세대에서는 하루 빨리 코로나19가 종식되어서 다시 교회에서 차세대들을 만날 날을 기도하고 있다.

“얼마 전에 양지면 시내에 있는 햄버거 가게에 들렀는데 그곳에서 우리 교회 아이를 만났습니다. 몇 달이나 못 봤더니 몰라보게 컸더라고요. 아이들과 건강하게 만나서 함께 신앙생활 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하루 빨리 다시 만날 날을 기다리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 김영선 기자 k4458@onnuri.org


코로나19, 이렇게 극복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OBC 요한서신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것들이 바뀌었다. 일상의 작은 것들까지 너무 많은 것들을 포기해야만 했다.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예배당 예배, 순모임, 성경공부, 아웃리치, 수련회 등 이 모든 것들이 하나도 당연한 것이 아니었다. 보이지 않지만 우리에게 값없이 주어졌던 공기처럼 그동안 주어졌던 모든 것이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였고, 십자가 사랑이었다. 일부 세상은 예배를 사수하고자 하는 교회의 헌신을 비롯거나 교묘하게 교회를 통제하고 억압하려고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믿음이 좋았던 사람들조차 예배에 대한 중심을 잃어가고 교회로부터 멀어져가는 것을 보았다. 끝나지 않는 이 상황에서 지치고 우울해하는 지체들도 많이 생겨났다. 그러나 어떤 고난과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의 복음은 멈출 수 없다.

온라인으로 진행된 OBC 요한서신 과정을 들으면서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신 하나님의 모략과 통찰,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승리를 경험할 수 있었다.

처음에는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성경공부를 그리 신뢰하지 않았다. 더 솔직하게 말해서 은혜 받을 수 있을 거라는 기대조차 하지 않았다. 새로운 수업방식 등 온라인 수업의 모든 것이 어색하고 불편했다. Zoom에 접속하는 것이 능숙하지 않아서 아침마다 분주했고, 시행착오도 많았다.



이상은 성도가 온라인 OBC 요한서신 과정이 영혼의 CPR(심폐소생술)이었다고 고백했다.

평소 같으면 늦잠을 잤을 토요일 아침, 정리되지 않은 방, 부스스한 모습으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 앞에 나타나야 한다는 것 자체가 부담스럽고 힘들었다. 쉽지 않았지만 수업의 횟수가 거듭될수록 모든 것이 수월하고 자연스러워졌다. Zoom 접속도 순식간에, 낮가리는 모습은 온데간데없이 내 모습 이대로 가식 없이 공개할 수 있게 되었다.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

과 속 깊은 것까지 나눌 수 있는 것이 너무 신기했다.

온라인 OBC 강의의 최대 수혜자는 나였다. 작년부터 지방근무를 하면서 교회 주중모임이나 행사는 물론 순장모임에도 참석할 수 없게 되어 바싹바싹 말라가고 있던 터였다. 교회에서 제공하는 영적 영양분으로부터 멀어지면서 세상 사람들과 다름없이 치이고, 끌려다

니며 성품이 더욱 까칠해졌다. 그러던 차에 행해진 온라인 OBC 요한서신은 내 영혼의 CPR(심폐소생술)이었다. 세상의 찌든 때와 독소를 찾아내고 제거하는 내 영혼의 디톡스 타임이었다. 요한서신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강의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에 다시 한 번 감격하며 내 안에 회개와 눈물이 터져 나왔다. 성령께서 내 마음을 만지셔서 한주 동안 세상 속에서 딱딱하고 거칠어진 영혼의 굳은살들을 제거하시고, 부드러운 살 같은 마음으로 회복시켜 주셨다. 특히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 모인 지체들의 간증을 들으며 제한 받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섭리를 느낄 수 있었다. 큐티나 순모임과는 또 다른 차원의 하나님과의 깊은 사귄이었다.

이번 온라인 OBC 수업은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마지막 때를 살아내야 하는 성도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바위이자 피난처였다. 코로나19가 가속시킨 변화, 교회를 향한 세상의 공격 등 그 어떤 것도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 하나님은 세상이 꿈도 꾸지 못하는 방법으로 당신의 자녀들에게 말씀을 부어주시는 것이다. 하나님의 복음은 전염병보다 빠르고 강력하게 확장되어 갈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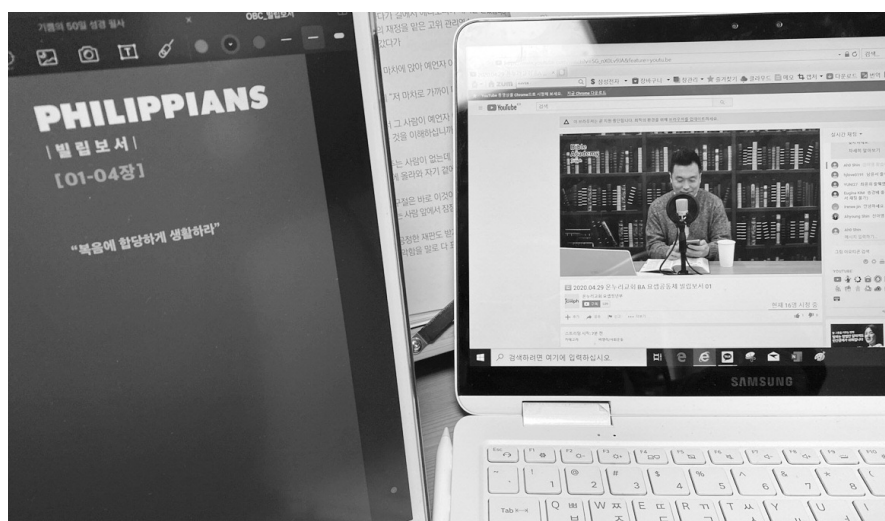
/ 이상은 성도(김포공동체)

대학청년부 온라인 바이블 아카데미 빌립보서

온라인 바이블 아카데미 빌립보서 강의를 듣기로 결정하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곳이 어디인지 깨닫게 된 후였다. 내가 있는 이 자리가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어쩔 수 없이 머무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는 자리라고 생각하게 되면서 말씀이 필요했다.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어떻게 행동하고 말해야 하는지,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지, 뚜렷한 방향을 알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내가 가진 좁은 관점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길 넓은 관점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말씀이 필요했다. 적절한 시기에 온라인 바이블 아카데미가 시작된 것을 감사했다.

온라인 빌립보서 강의 중에서 지금도 생각나는 포인트를 세 가지로 축약해보자면, 시민권, 옥바라지, 유오디게와 순두게다. 먼저 시민권을 깊이 묵상해보았다. 바울은 로마 시민권으로 인해 영적 갈등함이 없던 빌립보 성도들에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음'을 일깨워준다. 바울의 메시지를 보면서 편안함만을 좇으며 살아가고 있던 나의 일상을 돌아보게 됐다. 어려움이나 부족함 없이 살다보니 편하고 안정적인 직장, 가정, 삶을 꿈꿀 때가 있다. 편하고 안정적으로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 가

시민권, 옥바라지, 유오디게와 순두게



신아영 자매가 대학청년부 온라인 바이블 아카데미 빌립보서 강의를 듣고 있다.

야자라는 생각을 가질 때도 있는데, 이 생각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의 생각이 아니라 잘못된 생각이었음을 알게 됐다. 시민권에 대해 인지하게 된 이후 더욱 하나님 나라의 시민답게 살 거라고 다짐하고 있다. 그 덕분에 감사가 넘치는 일상을 보내고 있다.

옥바라지를 묵상했다. 빌립보 교인들은 바울의 옥바라지를 위해 에바브로디도를 엄청

나게 먼 거리의 로마까지 보냈다. 그들은 죄수와 같은 대우를 받으면서도 옥바라지를 멈추지 않았다. 빌립보 교인들이 이해되지 않았다. 동역을 위해 죄수가 되어야 한다면 나는 그렇게 할 수 있을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죄수가 되어야 한다면 나는 그렇게 할 수 있을지 생각해보기도 했다. 결국 내 안에 사랑이 여전히 부족하다는 것을 알았다. 바울이 옥중에서

도 기쁨으로 충만할 수 있던 것은 빌립보 교인들과 같은 생각을 품고, 같은 사랑을 나타냈기 때문이라고 한다. 내가 소속 되어있는 공동체 사람들과 같은 생각, 같은 사랑을 품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요셉공동체 사람들과의 관계가 바울과 빌립보 교인들과의 관계처럼 됐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소망한다.

유오디게와 순두게의 이야기도 묵상해보았다. 교회 내 또는 공동체 안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갈등관계를 대표하는 인물들이다. 목사님께서는 그들의 갈등 원천이 인간적 야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하다 생긴 것이라고 하셨다. 그러면서 갈등관계 또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권면을 해주셨다. 그중에서 와 닿았던 것이 '영적 레시피 네 가지'다. 하나, '자신이 삶의 주인이라 생각하는 이 기심으로 하지 말라', 둘, '없는 데 있는 것처럼 보이고 싶어 하는 허영으로 하지 말라', 셋, '다른 사람들을 자기보다 낮게 여겨 타인의 장점을 인정하고 세워주라', 넷, '내 유익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도 생각하여 다른 사람의 일도 돌아보라'이다. 영적 레시피 네 가지를 실천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야겠다.

/ 신아영 자매(요셉공동체)

온누리 미래준비 세미나 **뉴노멀 더넥스트** 참가자 후기

▶ 순예배 간담회 설문조사 연구원 간증

지난 5월, 우리 가정이 공동체에 적응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셨던 장로님으로부터 연락을 받았다. 온누리교회 3천개 순과 공동체에 소속 안 된 성도님들을 대상으로 ‘코로나 이후 세상과 교회’를 주제로 순예배 간담회 설문조사를 실시한다는 소식이었다. 그러면서 나에게 성도님들의 방대한 설문조사 내용과 응답 결과를 취합하고 정리하는데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고 제안하셨다. 그렇게 우리 회사에서 온누리교회 순예배 간담회 설문조사를 연구 및 분석, 정리하게 되었다.

나를 제외한 대부분의 연구원들이 교회를 잘 알지 못하는 무신론자들이었다. 하나님은 이번 순예배 간담회 설문조사 분석을 통해 무신론자 연구원들에게 하나님을 알리는 일을 행하셨다. 2회에 걸친 설문조사를 통해 총 24,007개나 나온 응답결과는 일반 조사에서는

보기 힘든 참여율이었다. 게다가 질문 하나하나에 정성과 순도 높은 답변들이 가득했다. 이 설문지를 분석하고 정리하면서 무신론자 연구원들이 “오 마이 갓(오 나의 주님)”을 외치며 하나님께 도움을 간구하는 모습을 보였다.

순예배 간담회에 이어서 진행된 온누리 미래준비 세미나 ‘뉴노멀, THE NEXT?’에서는 설문조사로만 접했던 성도님들의 생각과 의견을 직접 생생한 목소리로 들을 수 있었다. 이재훈 담임목사님께서도 세미나 참가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미래를 새롭게 하라”고 권면하셨다. 목사님의 말씀처럼 온누리 미래준비 세미나 ‘뉴노멀, THE NEXT?’를 통해 미래를 새로이 준비하려는 온누리교회의 노력과 저력을 느낄 수 있었다.

한 사회 조사결과에 따르면 이번 코로나19로 인해 일반 국민들의 85%가 가정 경제에 영

향을 받았고, 그중에서 35%는 심각한 영향을 받았으며, 어려움에 처한 국민들 10명 중 7명은 도움 받을 곳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일반 국민들은 코로나19 이후 언택트 시대, 교회의 온라인 예배는 긍정적인 변화로 받아들이나 그 변화상태가 지속될 것 같지 않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실제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도 실직하거나 사업체 매출 감소 및 회사 내 구조조정 등으로 가정 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받고 있는 이웃들이 있다. 교회 예배, 공동체 교제와 사역들을 불신하고 우려하는 이웃들이 바로 우리 곁에 있다.

교회 공동체는 대면 만남과 교제를 기초로 존재한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대면 예배와 교제가 필요하다. 역설적이게도 온라인으로 진행된 순예배 간담회에서 성도님

들이 대면 예배와 공동체 교제를 얼마나 갈망하고 있는지를 새삼 느낄 수 있었다.

이번 온누리 미래준비 세미나 ‘뉴노멀, THE NEXT?’를 통해 일반 성도들의 다양한 의견을 들어보았다. 새로운 변화는 그 의견들을 토대로 세워질 것이다. 이러한 새로운 시도가 온누리교회 나아가 포스트코로나 시대 한국 교회가 가장 안전한 공간이 되기를, 의지할 곳 없고 소외된 이웃들의 삶에 참사랑을 실천하는 사역으로 사회적 신뢰를 쌓을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소망한다.



강세훈 집사
(강남D공동체)

▶ 온누리 미래준비 세미나 패널 간증

지난 1월 말 인도네시아로 아웃리치를 다녀왔다. 귀국하면서 출국했을 때와는 사뭇 달랐던 상황들을 겪었다. 공항 및 공항 주변 그 어디에서도 마스크를 구할 수 없었고, 외국 사람들 눈에 중국인과 외모가 구분이 안 되었던 우리 부부는 사람들의 기피 대상이 되어있었다. 직장에서는 자가격리를 요청받고, 원격근무라는 새로운 형태의 일상이 펼쳐졌다.

상상치도 못했던 변화를 경험하면서 많은 생각을 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함과 동시에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고 있던 것들의 근본적인 목적과 이유에 대한 고민이었다. 교사로써 학교 현장에서 겪었던 변화로 인해 ‘학교란 무엇일까?’, ‘교사의 역할은 무엇인가?’와 같이 너무나 당연해서 스스로에게도 던져본 적 없는 질문들이 끊임없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수많은 만남과 모임들로 분주했던 교회사

역들도 한순간에 멈출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예배와 공동체의 의미에 대해서도 많은 생각을 했다. 그러던 차에 교회에서 포스코 코로나 시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소식을 접했다. 나에게 수많은 고민을 가져왔고, 근본적인 질문을 하게 만들었던 코로나19 상황을 우리 교회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해석할지 무척이나 궁금했다. 감사하게도 온누리 미래준비 세미나 ‘뉴노멀, THE NEXT?’ 패널로 참석해서 많은 분들이 겪고 있는 코로나19에 대한 고민을 듣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됐다.

나는 특수학교 교사로 경험했던 사례들을 나눴다. 장애인들이 코로나19로 인해 겪고 있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든 현실을 듣고 많은 분들께서 함께 가슴 아파해주셨다. 마스크 때문에 이전보다 훨씬 더 소통에 어려움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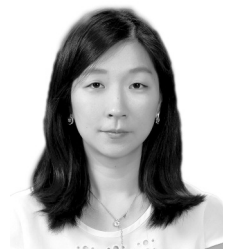
우리가 만들어 가야 할 ‘뉴노멀’

겪을 수밖에 없는 청각장애인들, 장애인을 24시간 돌봐야 하는 가족구성원들의 힘겨운 상황, 선별진료소에서 통역이나 적절한 안내를 받지 못했던 시청각 장애인들, 확진자와 접촉해서 혼자 격리돼 물 한 모금 마시기 어려운 상황을 겪어야 했던 중증장애인들의 이야기 등은 우리에게 흔히 전달되지 않은 뉴스들이다. 다수가 아니기 때문에 관심과 적절한 조치를 받지 못했던 장애인들에게는 코로나19 상황은 슬프고 답답한 현실이었다.

그 수많은 고민들이 나에게도 ‘뉴노멀’을 가져왔다. 더 이상 예전과 같을 수 없고, 예전이 무조건 옳았던 게 아니라는 깨달음이었다. 학교 현장에서 아이들을 만나는 시간이 항상 허락되는 것이 아니기에 더 소중하게 다가왔다. 또한 장애인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들을 위해 더욱 기도하며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으려고 한다. 이 모든 것이 새롭고 낯선 상황이기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창의적인 방법들을 간구할 것이다.

온누리교회도 설레는 마음으로 뉴노멀을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뜻을 품는 뉴노멀을 세워가기를 기대한다. 세상에서 보잘 것 없는 작은 자들을 귀히 여기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뉴노멀, 값을 것 없는 자들을 섬기는 뉴노멀, 예수님을 위해 향유욕함을 깨뜨렸던 여인과 같이 거룩한 낭비를 과감히 할 수 있는 뉴노멀을 추구해야 할 것이다.



최선 집사
(부천 온누리교회)

▶ 온누리 미래준비 세미나 참가자 간증

코로나19를 겪으면서 ‘교회와 성도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고민을 가지고 있었다. 다른 성도들과 교회의 의견이 궁금해서 온누리 미래준비 세미나 ‘뉴노멀, THE NEXT?’에 참석했다.

젊은 세대들의 참여가 저조해서 놀랐다. 설문조사 참여율도 낮았을 뿐만 아니라 오프라인 온누리 미래준비 세미나 ‘뉴노멀, THE NEXT?’ 참석자 중에서도 젊은 또래들을 찾아보기 힘들었다. 김윤 박사님의 이야기처럼 교회는 4차 산업혁명에 발맞춰 변화해갈 것인데, 그 주역이 될 다음세대가 이 현장에 없다는 것이 걱정스러웠다. 솔직한 마음으로 시니어 성도들과 리더십들이 4차 산업기술들을 충분히 이해하고 반영할 수 있을지 고민이 되기도 했다.

미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다음세대의 의견

수렴이나 참여가 저조하면 더 먼 미래까지 장담할 수 있을까? 온누리교회는 주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일찍이 CGNTV를 시작했고, 미디어 시대에 큰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 그런데 미디어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차세대들이 CGNTV를 거의 보지 않고, 중장년층 성도들만 CGNTV를 시청한다는 것이다. 필요 이상으로 다음세대와 소통하며 온누리교회의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 어떻게? 소규모모더라든 온누리미래준비위원회와 다음세대들이 의견을 나누는 토론의 장이 열리기를 바래본다.

개인적으로 겪고 있는 어려움은 온라인 소그룹이다. 이번 순예배 간담회 설문조사에서도 나왔지만 젊은층일수록 소그룹 나눔을 못하는 상황에 대해 답답함과 아쉬움이 크다. 오프라인 소규모 모임이 제한되어 있는 지금은 어떻게 하면 온라인에서 소그룹을 활성화 시

킬 수 있을까, 순장들은 온라인 소그룹에 맞는 훈련을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해야 한다. 이전과 같이 <생명의 삶>으로 삶을 나누려는 막연한 소그룹 운영 지침만으로는 온라인 소그룹을 운영하기에 큰 어려움이 있다. 나부터도 새가족을 담당하고 있는데, 얼굴 한 번 못 본 새가족들이 쉽사리 온라인 소그룹에 참여하지 않는다.

나는 순원이 10명인 순에 소속되어 있는데 친하지 않은데 얼굴을 보면서 속이야기를 나누는 것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 어렵게 모임을 이끌어 가는 순장들은 탈진한 상태며, 온라인 순모임 참여를 권유하기 힘들어 한다. 리더십들과 목회자들의 격려로 힘을 내고 있지만, 지금의 상황이 계속된다면 어느 누가 순장의 역할을 계속 감당할 수 있을까? 순장이나 리더십들에 대한 목양도 더욱 풍성해지고 새로워

져야 할 것이다.

소모임이나 목양을 Zoom에서 진행하는 것이 전부라 아니라 소모임, 목양, 마인드셋, 소통의 방식까지 변화해야 한다. 또한 나는 서빙고 온누리교회 차세대들을 섬기고 있는데 차세대들이 느끼고 있는 변화는 더욱 크다. 친하지 않은 선생님들과 온라인으로만 소통한다는 것을 상당히 불편해한다. 지금의 상황이 계속 이어진다면 교회는 어떻게 해야 할까? 불평불만으로 끝내지 않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다 함께 머리와 마음을 모아 개선점을 찾아야 할 때다.



유윤경 자매
(SNS공동체)

People

만나고 싶었습니다

세상 문화에 찌들어 살던 한 남자가 있었다. 그런데 두 번이나 죽을 뻔한 사고를 겪으면서 인생이 달라졌다. 첫 번째 사고 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고, 두 번째 사고 때 온전히 하나님을 받아들이며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다. 기적 속에서 하나님을 만난 그가 이렇게 고백했다. “덤으로 받은 인생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이 감동적인 이야기의 주인공은 수원 온누리교회 유완열 순장(64세)이다. 유완열 순장은 순원들과 공동체에서 예수 닮은 사람이라고 소문이 자자하다. 누군가에게 도움이 필요하면 무조건 달려가 섬기기 때문이다. 남의 일을 내일처럼 여기고 위로하기 때문이다. 그야말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사람이다. 지난 22일(수) 서빙고 온누리교회에서 유완열 순장을 만났다.

/ 정현주 기자 joo@onnuri.org

“덤으로 받은 인생 주를 위하여...”

예수 닮은 사람 유완열 순장의 이야기

“흠뻑한 분들이 얼마나 많은데 저처럼 변변치 못한 사람을 인터뷰 하겠더니요?”

유완열 순장이 처음 건넨 말이다. 그는 참 겸손하고 또 겸손한 사람이다.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그가 겸손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기쁨으로 충만한 사람임을 단번에 알 수 있었다. 그 감사와 기쁨이 아무나 할 수 없는 봉사와 섬김의 동력이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유완열 순장은 순원들과 공동체 지체들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본인 일처럼 여기고 두 팔을 걷어 부친다. 달려가서 위로하는 것이 그가 가장 좋아하고 잘 하는 일이다. 유완열 순장이 이렇게 열심히 봉사와 섬기는 이유가 있다. 덤으로 받은 인생을 살고 있기 때문이다.

“기적적으로 살아나는 순간 결심했습니다. 덤으로 살게 된 인생 주를 위해 살겠다고 말입니다.”

두 번의 사고와 회심 그리고 변화

유완열 순장이 예수님을 처음 만난 것은 군복무를 할 때다. 휴식시간에 평행봉에서 물구나 무서기를 하면서 놀고 있는데 갑자기 팔에 힘이 쏙 빠지더라. 그대로 땅으로 떨어져 정신을 잃었다.

“깨어나긴 했는데 상태가 안 좋았더라고요. 정신을 못 차리고, 사람도 잘 못 알아보고, 기억도 잘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몸에 열이 많이 나고, 그런데 병명을 알 수 없었습니다. 결국 의가사 제대를 하고 종합병원에 입원했습니다. 같은 병실에 입원한 다른 환자의 아들(대학생)이 병문안을 와서 아버지를 위해 기도하더니, 저에게도 와서 기도를 해주더라고요. 그 청년이 저를 위해 두세 번쯤 기도를 해줬는데, 신기하게 몸에서 힘이 나는 걸 느꼈어요. 그 청년의 기도로 제가 나은 겁니다. 그렇게 제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기도의 힘으로 병이 나고, 예수님을 믿었지만 사회생활을 하면서부터 도루묵이 되어버렸다. 유완열 순장은 세상 문화에 흠뻑 빠져 살았다.

“세상에는 놀 것들이 참 많습니다. 저만큼 놀기 좋아하는 사람이 별로 없을 정도로 놀았습니다. 술 마시고, 담배 피고, 골프 치며 접대도 하고요. 도박도 했습니다.”

세상 문화에 찌들어 살던 유완열 순장이 지금의 모습으로 변하게 된 건 두 번째 죽을 고



남을 위한 봉사와 섬김이 일상인 유완열 순장(위), 유완열 순장이 요양원에서 찬양으로 섬기고 있다(아래).

비를 넘기면서부터다.

“제가 건축인테리어 관련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건물 옥상에서 카메라를 들고 작업하다가 그만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죽는 게 당연할 정도로 큰 사고였는데 카메라도 멸절했고, 저도 가벼운 부상만 입었습니다. 병원에서도 다들 놀라더라고요. 그렇게 기적처럼 살아나면서 결심했습니다. 덤으로 살게 된 인생 주님을 위해 살겠다고요.”

그날 이후 유완열 순장이 완전히 달라졌다. 세상에서 즐기던 것들을 모두 끊었다. 그 대신 마음 가득히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기쁨을 채웠다. 그때부터 그의 마음에 긍휼함이 생겨났다. 하나님을 기뻐하며, 긍휼한 마음으로 신앙 생활을 했다. 그리고 남을 위한 봉사와 섬김이 일상이 되었다.

**크리스천이라면
손해 보고, 베풀고, 양보하고**

유완열 순장은 순원들과 공동체 지체들을 위한 중보기도를 빼놓지 않는다. 혹자는 별거 아니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의 중보기도는 남들과 다른 점이 있다. 의무감이 아니라 정말로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는 애끓는 심정으로 부르짖는다.

“한번은 순원 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하신 적이 있었는데, 그분을 위해 기도하는데 당장 찾아가야 할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과 함께 병원에 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나왔는데 그 다음날 소천하셨어요. 하늘 나라 가기 전에 제가 배웅해드린 셈이었어요. 또 한번은 교수임용이 매년 좌절 되어서 실의에 빠진 순원이 있었는데, 이번에도 안 되면 고향에 내려가겠다고 하더라고요. 순원들과 함께 전심으로 그분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얼마 후 그 순원에게 교수임용이 되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얼마나 기쁘고 감사했는지 모를

니다. 그 일이 있은 이후 저의 중보기도 제목을 훑어봤는데 정말이지 하나도 안 이뤄진 게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들어주셨더라고요.”

유완열 순장은 예전에 다니던 교회 사람들과 함께 상황이 열악한 전국 미자립교회와 목회자들을 돕는 사역도 하고 있다. ‘생명의 샘 선교회’ 활동이 바로 그것이다. 주로 재정적 곤란으로 힘들어하는 미자립교회 시설을 보수해주고 있다.

“처음에는 생명의 샘 선교회 활동을 자비량만으로 충당했는데, 지금은 이름 없는 여러 후원자들이 함께 도와주고 계십니다. 그분들께 정말 감사합니다.”

유완열 순장은 요양원 봉사도 한다. 매주 주일 요양원 세 군데를 찾아가서 주일예배를 인도한다. 기타치고, 찬양하며, 때로는 말씀을 전하기도 한다.

“주일 1부 예배를 드리고 바로 요양원으로 출발합니다. 오전 9시, 오후 2시, 오후 6시에 요양원 세 군데에서 찬양 인도를 하면서 환우들과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힘에 부치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환우들이 예배드리겠다고 휠체어 타고, 때로는 침대에 실려 와서 찬양하는 걸 보면 도저히 멈출 수가 없습니다. 제가 그분들을 섬기러 가는 게 아니라 도리어 그분들이 저에게 힘을 줍니다.”

안타깝게도 지금은 요양원 섬김을 할 수 없다.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방문 자체가 불가능하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환우들이 아픈 몸을 이끌고서라도 예배드리고 찬양하러 나올 정도로 복음에 목말라하고 있기 때문에 더 가슴 아픕니다. 그들을 누가 위로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겠습니까? 하루빨리 이 상황이 종식되어서 요양원 환우들을 만나고 싶습니다.”

그도 사람인데 헌신적으로 섬기고 봉사하는 게 때로는 지치기도 하고 힘들지 않을까?

“왜 안 힘들겠어요? 그래도 크리스천은 조금 손해 보고, 조금 더 베풀고 양보하고 사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누군가를 돕고 나면 제 안에 기쁨이 가득 차서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평생 함께 하시고, 늘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에 기쁨과 감사하는 마음으로 섬길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아내에게 감사합니다. 제 아내는 정말 천사 같은 사람입니다. 아내 덕분에 제가 섬기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아내에게 정말 감사하고, 아내를 정말 사랑합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 온라인 탐구생활

1. 인터넷 커뮤니티 2. 클라우드 펀딩

또 다른 소통의 장 ‘인터넷 커뮤니티’

다양한 기독교 콘텐츠 공유 및 성도들 교제의 장

온라인에서 할 수 있는 것보다 할 수 없는 것을 찾는 게 빠른 시대다. 교회도 이제는 온라인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를 깊이 고민해야만 한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이 같은 변화를 앞당겼다. 오프라인 시대에서 온라인 시대로 옮겨지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교회는 이 같은 시대변화에 발맞춰 온라인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극대화하고, 단점을 최대한 보완하면서 기독교 콘텐츠를 공유하고, 성도들의 풍성한 교제의 장을 제공해야 한다. 언택트(Untact) 시대 성도들은 공동체의 기능과 성도들 간의 교제에 몹시 목말라 있기 때문이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 했다. 교회가 적극 활용할 수 있는 온라인 세상을 들여다보자. 그 첫 번째 순서는 ‘인터넷 커뮤니티’다.

/ 김영선 기자 k4458@onnuri.org

온라인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없는 양방향 의사소통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또한 이미 비슷한 관심사와 흥미를 중심으로 모인 온라인 커뮤니티(공동체)가 셀 수 없이 존재한다. 교회가 온라인 커뮤니티를 배우고 적극 활용한다면 그 효과가 배가 될 수밖에 없다. 코로나19로 인해 만나고 싶어도 만나지 못하는 상황에서 공동체의 기능과 성도들 간의 교제만큼 갈급한 게 없기 때문이다.

태초 이래 오프라인 중심의 공동체가 교회의 핵심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온라인 커뮤니티로의 전환이라는 시대적 과제가 주어졌다. 충격적이고, 두려움과 설렘이 공존할 수밖에 없다. 온라인을 활용한 커뮤니티를 어떻게 만들고,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에 대해 잘 모르는 것이 당연하다. 그렇다고 주저하고 있을 수는 없다. 가장 빠르게 적응하는 방법은 단 한가지다. 배우고 적응하는 것이다.

이미 온라인에는 셀 수 없을 만큼 온라인 커뮤니티가 형성되어 있고, 나름 잘 운영되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를 현실과는 동떨어진 독립적인 공간, 논란을 일으키는 유해한 공간으로 오해하기 쉬운데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는 그렇지 않다. 온라인 커뮤니티들이 대한민국의 여론과 유행을 선도해갈만큼 그 영향력이 대단하다. 온라인 커뮤니티 구성원들은 단순한 정보공유를 넘어서 함께 울고 웃으며 오프라인 공동체와 같은 역할을 충분히 감당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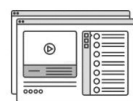
인터넷사용자 두세 사람 모이면 그것이 바로 ‘온라인 커뮤니티’

온라인 커뮤니티의 정의는 그리 대단하지 않다. 인터넷사용자 두세 사람이 모이면 그것이 바로 온라인 커뮤니티다. 카카오톡이나 텔레그램 등을 활용하는 단체채팅방부터 포털 사이트 뉴스에 의견을 제시하는 형태도 온라인 커뮤니티의 한 형태이다.

2020년 1월 국내 인터넷 트래픽 상위 20개 사이트를 나열하면 1위 네이버부터 구글, 유튜브, 다음, 네이버 뉴스, 디지인사이드, 페이스북, 구글코리아, 트위터, 네이버 쇼핑, 티스토리, 네이버 지도, 쿠팡, 네이버 스포츠, 루리웹, 네이버, fm코리아, 카카오, 나무위키 순이다. 이 중에서 눈여겨 볼 사이트들이 있다. 바



기술 장벽을 제거하여 교회가 어디에 있든지 그리스도를 위해 사람들에게 다가 갈 수 있도록합니다.



자유 기술

Church Online Platform은 강력한 콘텐츠를, 세련된 사용자 인터페이스 및 속도를 위해 특별히 설계된 기능을 통해 가장 강력한 교회 온라인 콘텐츠를 하나의 무료 도구로 제공합니다.



커뮤니티

비디오 플레이어 그 이상입니다. 기도하는 데 동의하고 생생한 예배는 전 세계 커뮤니티를 빌려줍니다. Church Online Platform은 Chat, Live Prayer 및 동기화 된 비디오 스트리밍을 통해 교회를 함께 하는 것입니다.



간단

Church Online Platform은 구성 요소를 관리하기 쉬운 하나의 도구로 구성함으로써 모든 규모의 교회가 그리스도를 위해 세상에 도달 할 수 있도록합니다.

LifeChuch.tv는 온라인 교회 플랫폼 노하우와 소스들을 제공합니다.

로 인터넷 커뮤니티다. 인터넷 커뮤니티는 공통의 관심사를 공유하는 웹 사이트를 의미한다. 6위 ‘디지인사이드’, 15위 ‘루리웹’, 18위 ‘fm코리아’가 인터넷 커뮤니티다. 하루 접속자가 디지인사이드 199만 명, 루리웹 80만 명, fm코리아는 59만 명이나 된다.

디지인사이드는 국내 최대 온라인 커뮤니티다. 디지털카메라로 찍은 사진을 공유하는 온라인 커뮤니티로 시작했는데 지금은 관심사별로 무려 2천여 개의 갤러리(소규모 게시판)와 1만여 개의 마이너 갤러리를 중심으로 사용자들이 모이고 있다. 누구든지 원하기만 하면 개별 갤러리를 개설할 수 있는 게 특징이다. 하루 페이지뷰가 1억 회에 달한다. 루리웹은 게임을 중심으로 형성된 온라인 커뮤니티다. 게임과 더불어 애니메이션, 피규어 같은 서브컬처가 주요 관심사다. fm코리아는 fm(Football Manager)라는 축구 시뮬레이션 게임 정보를 공유하는 커뮤니티로 시작했다. 지금은 축구 전반 정보를 공유하는 남성중심 커뮤니티로 성장했다. 이외에도 여성들을 위한 커뮤니티, 주부들을 위한 커뮤니티 등 각자의 관심사와 흥미에 따라 셀 수 없이 많은 인터넷 커뮤니티들이 운영되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는 각자의 성향과 특징을 가지고 있다. 또한 이용자들이 어느 하나의 커뮤니티에만 올인 하는 것은 아니다. 필요에 따

라 여러 커뮤니티를 동시에 이용하기도 한다. 다만 무분별한 이용을 막기 위해 이용방법, 가입방법, 게시글, 댓글 제한 등의 규제를 두고 있다. 매일 하루, 특정 시간에 신분증과 사용자의 사진을 운영진에게 보내야 가입을 허용해주는 커뮤니티도 있다.

인터넷 커뮤니티의 장점이자 단점은 ‘약한 소속감’과 ‘책임’이다. 누구든지 해당 커뮤니티를 이용할 수 있지만 커뮤니티 구성원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이 적절하게 부여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공동의 목적 달성을 위해 높은 ‘결속력’과 ‘유대감’을 강조하는 커뮤니티도 있다. 게임 중심 커뮤니티나 게임 속의 길드가 이에 해당한다. 최신 IT기술의 집약체일 뿐만 아니라 차세대 IT기술의 실험의 장이기도 한 게임은 진입장벽이 낮지만, 그 안에서 높은 영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뼈를 깎는 노력을 해야 한다. 게임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길드와 커뮤니티의 구심점은 경쟁심을 바탕으로 한 결속력과 유대감이다. 게임에서의 영향력과 고급정보는 현실에서의 영향력과 가치로 환산되기도 하기 때문에 사용자들은 고급정보와 노하우를 공유하는 길드와 커뮤니티에는 들어가고 싶어 한다. 각자 높은 책임과 막중한 역할이 부여되고, 할당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에는 탈퇴당하기도 한다. 따라서 구성원들은 각자의 역할을 부여받고 온

프라인을 넘나들며 길드와 커뮤니티에 기여도를 높일 수밖에 없다. 이와 같은 시사점을 잘 적용해서 교회가 활용할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약한 소속감과 책임을 보완할 공동의 목표와 역할을 반드시 부여해야 한다.

한국 교회에 강화되는 네트워크 기반 신앙생활과 영성훈련

현재 한국 교회가 활용하고 있는 온라인 커뮤니티는 개교회를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다. 소통보다는 정보 제공, 공지사항, 목회자의 칼럼을 공유하는 게 대부분이다. 몇 차례 개교회의 벽을 뛰어 넘은 온라인 커뮤니티를 형성하기 위한 노력들이 있었지만 대부분 허사로 돌아갔다.

대표적인 기독교 온라인 커뮤니티는 ‘갯피플’이다. 찬양, 웹툰, 공연, 취업 등의 콘텐츠를 제공하고 공유하는 사이트다. 하지만 갯피플도 소속감과 공동체성이 부족하다. 해외에서는 몇 차례 변화를 거쳐 온라인 커뮤니티가 성공적으로 자리 잡는 경우가 있었다. 영국의 ‘Church of Fools’, ‘I-Church’, 미국의 ‘Life Church.tv’ 등의 교회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주일학교, 신앙상담 등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한국 교회가 온라인 커뮤니티를 적극 활용하기 위해서는 온라인 세상에서 만들어지고 운영되고 있는 사례를 적극 배우고, 기독교 온라인 커뮤니티의 정체성과 방향 등을 균형있게 적용해야 한다.

미래학자 서용석 교수(KAIST)는 “코로나19로 한국 교회에 강화되는 부분은 네트워크 기반의 신앙생활과 영성훈련”이라고 했다. 지금이 적기다. 한국 교회가 교회라는 벽을 뛰어넘는 온라인 커뮤니티를 만들어야 한다. 온라인 커뮤니티 구성원 모두가 크리스천이라는 높은 유대감을 바탕으로 삶과 신앙을 나누고, 사역에 필요한 동역자들을 만나고,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주는 소통의 장(場)이 되어야 한다. 익명의 폭로, 이단, 안티크리스천 등의 횡행이라는 고비를 만날 수도 있지만 회원가입 방법, 댓글이나 게시글 작성 권한 등을 두면 충분히 관리할 수 있다. ‘디지털네이티브’라 불리는 다음세대를 위한 공간으로도 활용될 수 있다. 교회가 만든 온라인 커뮤니티는 다양한 기독교 콘텐츠를 공유하는 공간이자, 성도들이 삶과 신앙을 나누는 교제의 장이 될 것이다.

교회와 세상, 세대와 세대 잇는 징검다리

‘예배발전소’가 제작하는 기독교 영상 콘텐츠

직접 만든 기독교 영상 콘텐츠로 교회와 세상, 세대를 연결하고 있는 청년들이 있다. ‘예배발전소사역팀’(이하 예배발전소)이다. 예배발전소 청년들은 작은 원룸 하나를 작업실로 쓰면서 양질의 기독교 영상 콘텐츠를 만들어 내기 위해 밤낮으로 애쓰고 있다. 기획회의부터 촬영 및 섭외, 편집까지 늘 바쁘게 움직이지만 지치지 않는다. 왜냐하면 교회와 세상, 세대를 연결하는 기독교 영상 콘텐츠를 만들겠다는 하나님의 주신 꿈과 비전이 있기 때문이다. 예배발전소를 이끌고 있는 이종명 팀장(예배발전소, 여호수아공동체)을 만났다.

/ 홍하영 기자 hha0@onnuri.org

“교회와 세상, 기성세대와 청년과 차세대를 연결하는 기독교 영상 콘텐츠를 제작하고 보급하는 것이 저희들의 비전이자 꿈입니다.”

이종명 팀장이 소개한 예배발전소의 비전과 꿈을 듣는 순간 내 가슴도 함께 뛰었다.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콘텐츠를 제작하는 역할을 우리 교회 청년들이 감당하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 기뻐서 설레기까지 했다.

예배발전소는 2014년 최성민 목사(허브대학부)의 제안으로 만들어졌다. 당시 ‘영풍한 예배자들의 비밀 아지트’라는 타이틀을 내걸고 청년들이 형식에 묶이지 않고, 자유롭게 예배드리며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자 했다. 영상, 디자인, 음악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서 예배드리기 원하는 청년들이 동참했다. 청년들의 통통 튀는 상상력과 거침없는 실행력을 무기로 삼아 새로운 예배 콘텐츠를 직접 제작하고, 미디어를 통해 세상과 소통할 수 있는 예배문화를 보급하는 일에 헌신했다.

예배발전소의 첫 작품은 2016년 허브대학부 전도집회 홍보영상이었다. 당시 허브대학부에는 600~700명 정도의 청년들이 함께 예배드리고 있었다. 허브대학부에서는 더 많은 청년들에게 예수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기 위해 아심차게 전도집회를 기획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전도집회 참가 신청자가 단 4명뿐이었다. 이종명 팀장은 당황스러웠던 그날을 이렇게 회상했다.

“전도집회 신청자가 4명뿐인 것을 보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그 많은 청년들이 전도집회 참가신청을 거의 안했다는 사실이 당황스러웠습니다. ‘청년들이 전도에 이렇게 관심이 없나?’ 싶은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청년들의 참여도를 높이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고민하다가 영상이라는 매체를 활용해보자는 생각이 들어 전도집회 홍보영상을 제작했습니다.”

당시 허브대학부 MC단을 섬기고 있던 이종명 팀장이 전도집회 홍보영상을 제작했다. 밤낮 가리지 않고 영상제작에 매달렸다. 그 다음 주 예배에서 전도집회 홍보영상을 상영했다. 청년 134명이 전도집회 신청서를 제출했다. 첫 주와 비교해서 30배가 늘어난 숫자였다.

“전도집회 홍보영상을 상영한 이후 신청자가 급증한 것을 보면서 영상의 힘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영상이 익숙하고, 미디어에 노출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청년들에게 영상만큼 좋은 전도 도구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예배발전소 활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온누리교회 대학청년부 예배 홍보



예배발전소 ‘공감소비운동’ 유튜브 채널(왼쪽), 공감소비운동 영상 촬영 중인 예배발전소 청년들(오른쪽).



영상은 물론이고, 바이블아카데미, 맞춤전도 집회, 희망노트, FA 홍보 및 보고, 여성사역 ‘마리아톡톡’, 공감소비운동 등 온누리교회의 다양한 사역을 소개하는 영상을 예배발전소에서 제작하고 있다. 온누리교회의 주요 사역을 소개하는 영상들을 다수 제작하면서 그 실력이 자연스럽게 소문이 났다. 다른 교회에서도 영상 제작 요청이 들어왔다. 이뿐만 아니라 쇼핑몰, 여행사, 은행 등 일반 업체에서도 실력을 인정받고 영상제작을 하고 있다.

예배발전소의 사명과 정체성, 그리고 소망

“어떻게 하면 영상 속에 예수님의 사랑을 담을 수 있을까?”

사역과 일이 많아질수록 예배발전소 청년들은 초심을 되새겼다. 그러면서 더 큰 소망을 품게 되었다. 예배발전소가 제작하는 모든 영상 속에 예수님의 사랑과 복음, 기독교적 세계관을 담고 싶었다. 자극적이고 유해한 콘텐츠들이 증가하는 시대에 성경 말씀이 바탕이 된 선한 영상을 더 많이 제작하고 싶었다. 교회에서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영상을 제작하고 싶었다. 그렇게 만들어진 영상 중 하나가 ‘사랑해 캠페인’ 홍보영상이다. 사랑해 캠페인 홍보영상에는 성경 말씀이나 교회, 예수님에 대한 설명이 단 1초도 나오지 않는다. 하지만 성경에서 가장 강조하고 있는 사랑에 대해서 그 어떤 영상보다 감동적이고, 호소력 있게 전달한다.

사랑해 캠페인 홍보영상은 “당신은 가족에게 얼마나 자주 ‘사랑해’라고 말하시나요?”라는 질문으로 시작한다. 영상 속에 등장하는 자녀들이 휴대전화를 들고 쭈뼛거리며 부모에게 “사랑해”라고 고백한다. 자녀들의 사랑

고백을 들은 부모들이 울먹거리기도 하고, “엄마(아빠)도 사랑해”라며 대답을 하기도 한다. 부모의 답을 듣고 눈물 흘리는 자녀들을 다독이기도 하고, “우리 ‘사랑해’라는 말을 많이 하고 살자”는 격려를 하기도 한다. 이 영상은 “사랑해 한마디면 충분합니다”라는 메시지로 끝이 난다. 3분여의 짧은 영상 안에 사랑의 힘과 사랑이 주는 감동이 모두 녹아 있다. 이토록 감동적인 영상을 어떻게 제작할 수 있었을까? 이종명 팀장의 고백에 그 해답이 담겨 있다.

“예배발전소에서는 모든 영상을 제작할 때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이 영상을 통해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싶어 하시는지를 고민하고 기도합니다. 사랑해 캠페인 홍보영상을 제작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성경에서 강조하는 사랑이 세상에 흘러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영상을 제작했는데 그 마음이 온전히 전달되어 감동을 선물할 수 있었습니다.”

예배발전소는 교회와 세상을 이어주는 징검다리 역할도 톡톡히 해내고 있다. ‘공감소비운동(따뜻하게 사는 우리)’ 홍보영상이 그 대표적인 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사회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돕고, 소외된 이웃에게 사랑을 전하고자 80여 개의 교회에서 시작한 공감소비운동 홍보영상을 예배발전소에서 제작했다. 교회의 선한 사역을 세상에 소개하고, 그 영향력이 세상에서 계속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을 담았다.

공감소비운동 홍보영상을 보면 예배발전소 청년들이 영상을 제작할 때 얼마나 많이 고민하고 기도했는지를 단번에 알 수 있다. 아직 예수 믿지 않는 이들에게도 공감소비운동을 흥미 있게 소개하려고 이영표 집사(스포츠 해설가, 전 국가대표 축구선수)와 함께 ‘공을 감

아차다! 공감!’ 영상을 제작했다. 차세대(8살), 청년(20대), 기성세대(50대)와 이영표 집사가 함께 축구경기를 하면서 세대가 가진 고민을 듣고, 공감의 의미를 설명한다. 더불어 다른 이웃들의 고민과 어려움에 공감하며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공감소비운동을 소개한다. 흥미로운 소재를 활용해서 무겁지 않게 교회사역을 홍보한다는 점이 돋보인다.

또 다른 영상에서는 한 부모 가정, 조손가정, 결손가정 등을 돕고 있는 경산시에 있는 작은 교회의 사연을 소개하면서 공감소비운동을 홍보한다. 큰 교회나 단체뿐만 아니라 작은 교회와 개인도 지역사회의 어려운 이웃들을 돌보고, 도울 수 있다는 메시지가 담겨 있다. 이 영상은 특별하지 않은 사람들의 특별한 사연을 소개하며, 세상 속에서 공감소비운동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따뜻한 소비를 독려하는 취지로 제작했다. 공감소비운동 홍보영상은 교회는 물론 사회에서도 공감소비운동이 자리잡는 그날까지 제작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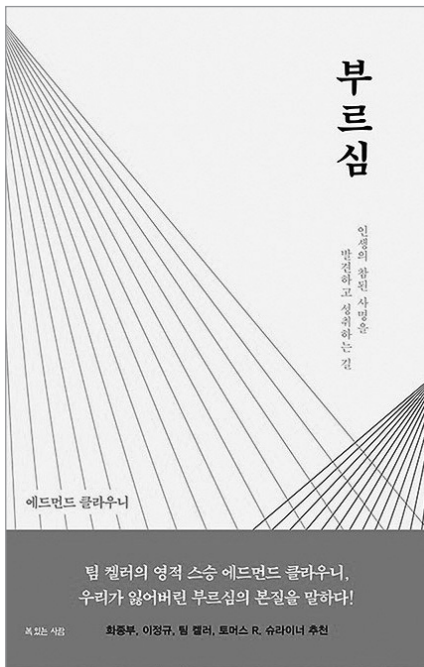
이종명 팀장이 예배발전소의 사명과 정체성, 그리고 소망을 밝히면서 기도를 부탁했다. “콘텐츠는 결국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예배발전소는 선한 것을 담은 영상을 제작하고 싶습니다. 세상의 필요에 귀를 기울이며 소식을 전하고, 교회의 따뜻한 사역을 세상에 전하며 교회와 세상을 연결하고자 합니다. 세대 간의 이야기를 공감하며 연결할 수 있는 영상을 제작하고 싶습니다. 예배발전소가 제작한 영상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이 세상에 흘러가고, 교회 안에 사랑이 넘쳐흐르며, 소통의 장이 펼쳐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해주십시오”

예배발전소 공감소비운동 유튜브 채널
<https://youtu.be/dv9dF9sJYuA>



책 읽어주는 목사

부르심은 순종이자 겸손



부르심(Called to The Ministry)
에드먼드 클라우니 저
| 복있는사람 | 10,000원

“당신을 향한 그리스도의 부르심은 무엇입니까?”
만약 당신이 같은 질문을 받는다면 어떠한 대답을 하겠는가? <부르심(Called to The Ministry)>은 이 질문에 명쾌한 해답을 선사해

줄 수 있는 책이다. 이 책의 저자 ‘에드먼드 클라우니’ (1912~2005)는 팀 켈러를 비롯해서 많은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에게 영향을 준 20세기 미국을 대표하는 목사다.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초대 총장과 실천신학 교수를 지냈다. 이 책의 한국어 제목은 <부르심>이지만 영어제목은 <사역으로의 부르심>(Called to the Ministry)이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모든 그리스도인을 향한 고귀한 선물이다”라는 설명처럼 이 책은 사역자만을 위한 책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이 읽으면 유익한 책이다. 역할과 행동으로 언급되는 사역적 부르심 이전에 우리의 이름을 아시고 부르셔서 새로운 정체성을 주시는 복음의 부르심 앞에 서기를 요청한다.

책은 두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란 무엇인가?’와 ‘사역으로의 부르심은 무엇인가?’이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의 부르심이다. 각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정체성을 새롭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부르심을 발견해야 한다. 자기 백성들을 죄로부터 구원해 주심으로 이름(정체성)을 바꿔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이다. 저자는 그 깊은 비밀이 우리의 이름 안에 있다는 사실을 알기 원한다. 그것을 아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며,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그분을 섬기도록 부름 받은 제자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

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벧전 2:21).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의 본질적 부르심은 그리스도이며, 그리스도의 삶과 십자가를 따르는 삶이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영광의 나라를 건설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은혜의 나라에서 십자가를 지도록 부름 받았다. 성도는 부르심에 성령을 통해서, 영적 교제를 통해서, 오늘의 기회를 통해서 반응할 수 있다.

두 번째 부르심은 ‘사역으로의 부르심’이다. 복음전도자와 목회자, 설교자로 부르심이 있는 성도들을 위한 부르심이지만 그리스도인이라는 본질적인 부르심을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 사역은 그리스도의 말씀과 행하시는 일, 그분의 부활에 대한 증인으로 부름 받아 교회와 세상에 전하는 것이다. 사역의 주체는 그리스도이고, 부르심을 입은 성도들은 중, 청지기, 전령의 역할을 감당함으로 부르심에 반응하는 것이다. 사역으로의 부르심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발견된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사가 나타난다. 그래서 부르심은 한 개인의 능력의 유무가 아니라 순종의 유무이자 겸손의 유무다. 은사를 통해서 자신의 부르심을 발견할 수 있고, 교회 공동체의 인정과 필요,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을 통해서도 부르심을 발견할 수 있다. 이 책을 읽으며 개인적으로 참 좋았던 내용이 있

다. 부르심과 관련해서 ‘주님의 뜻을 어떻게 구하고 알 수 있는가’에 대한 내용이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림과 둠뮌 혹은 새로운 예언을 주시지 않는데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더 이상 필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계시의 완성은 그리스도를 통해 이미 왔습니다.”(P.132)

또한 부르심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임무를 설명하는 대목도 좋았다.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를 분별하는 것이지, 어떤 일이 일어날지 점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상황을 해석하지 하나님의 명령을 상황에 맞추지 않습니다.”(p.142)

이 책을 읽으면서 새로운 뜻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미 완성자 되신 예수님의 말씀과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인내와 소망으로 살아내는 것이 주님의 뜻을 새롭게 알 수 있다. 이 책은 혼란스러운 코로나19 시대에 개인을 향한 부르심이 무엇인지, 성도와 교회의 부르심은 무엇인지 재확인 할 수 있는 기회를 선사한다. 부르심에 대한 의구심과 갈등을 가진 이들과 부르심 앞에 서 있는 이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문장원 목사
(인천 온누리교회)



그때는 이렇게 대답하세요

질문은 최고의 전도 도구!

병원 전도를 다니던 때 일이다. 한 병실에 들어갔더니 환자가 침상에 멍하니 앉아 있었다. 환자 옆에는 딸이 간병을 하고 있었다. 내가 가까이 다가가자 딸이 입을 열었다.

“엄마는 뇌졸중으로 병원생활 한 지 5년이 나 됐어요 인지능력이 떨어져 무슨 말을 해도 소용이 없어요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다른 곳에 가서 전하세요”

하지만 나는 그 환자가 잘 들을 것 같은 마음이 들었다. 딸의 거절에도 불구하고 나는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많이 힘드시죠?”

나와 눈을 지그시 맞추고 있던 그 환자가 힘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나의 질문에 고개를 끄덕이는 그 환자에게 “요즘 무슨 생각을 많이 하세요?”라고 또 다시 질문을 던졌다. 그 환자는 “엄마 생각”이라고 답했다.

“어른이라도 아프거나 힘들 땐 엄마 생각이 많이 나오지요?”

“그래요. 엄마가 보고 싶어요.”

그녀는 어린아이처럼 대답했다.

“우리는 나이 들어도 엄마 앞에서는 늘 어린 아이예요. 그래서 엄마 품이 그리운 거고요. 엄마가 날 낳아 주셨기 때문에 엄마 생각이 나는 것은 본능인 것 같아요.”

그 환자는 자신의 마음을 읽어 주는 것이 반가운지 손뼉까지 치가며 “맞아요!”라고 대답했다.

“부모님의 몸을 통해 내가 태어났지만, 나를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엄마가 보고 싶은 것은 내 영혼이 나를 지으신 하나님을 그리워하고 보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나는 천천히 복음을 전했고, 내가 전하는 말씀을 스핀지처럼 받아들이던 그 환자는 흔쾌히 예수님을 영접했다. 다시 한번 질문을 던져도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식이 되었다”고 대답했다. 엄마의 기억이 오래 가지 않는다고 딸이 말했지만, 나는 어머니의 영혼은 분명 기억하고 있다고 말하며 기도해주었다.

전도를 하다보면 전도대상자의 마음을 두드

릴 수 있는 질문이 중요하게 작용할 때가 많다. 질문은 최고의 전도 도구가 되기도 한다. 질문을 통해 예수님을 전했던 또 다른 사건이 있다. 내게는 어머니 같은 큰언니가 한 분 있다. 큰언니는 한겨울에도 소원을 꼭 들어준다는 팔공산 갯바위에 가는 불심이 특색인 사람이다. 천정에 갈 때마다 전도하면 “나는 이 법도를 따라야 해서 안 된다”고 대답했다. 그런 언니가 포항에 있는 한 요양병원에 입원했다. 언니에게 물었다.

“언니 힘들지요? 누워서 무슨 생각을 많이 해요?”

“빨리 죽어야지 하는 생각밖에 없어. 그래야 너희들도 멀리까지 오는 수고도 하지 않을 것이고...”

언니는 죽고 싶다는 말을 입에 달고 있었다. “언니, 빨리 죽는 것보다 잘 죽는 것이 중요해요. 어머니처럼.”

“우리 어머니처럼 죽으면 얼마나 좋겠니?”

천정어머니는 암을 진단 받았지만 오진인가 의심할 정도로 건강하게 지내시다 하루 저녁

않고 소천하셨다. 평소 오래 아프지 않고 천국에 가도록 기도하신 대로 이루어졌다. 이것을 알기에 나는 “어머니처럼 죽으려면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어머니처럼 된다면야 내가 믿지.”

언니의 대답에 나는 복음을 전했고 언니는 순순히 예수님을 영접했다. 전도는 보이는 것 너머를 보는 눈을 가지고 영혼을 터치하는 것이다. 마음을 알아주고, 만져주는 일이 아주 중요하다. 마음속에 일어나는 생각이 바로 그 사람이기에 “무슨 생각을 많이 하시나요?”라고 질문하면 그 사람의 고민거리나 관심사를 금세 알 수 있다. 질문은 전도대상자가 스스로 생각하도록 돕는 최고의 전도 도구다.



박인숙 권사
(신용산 공동체,
〈전도 여왕의 전도 레
시피〉저자)

온누리복지재단, '서초50플러스센터' 위탁

서초구 공모전 최종 선정, 위탁 기간 3년



10월 개관 예정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 중인 '서초50플러스센터' 전경.

지난 7월 20일 온누리복지재단이 서초구에서 공모한 '서초50플러스센터' 위탁운영체로 최종 선정됐다. 이로써 온누리복지재단은 총 13개의 시설(직영시설 4개소, 수탁시설 9개소)을 운영하게 된다.

서초50플러스센터는 장년층(50~64세)의 인생 이모작을 위한 취업훈련 및 일자리 지원 등의 사업을 수행하는 시설이다. 서초구 내국동에 위치해 있고, 10월 개관 예정이다.

서초50플러스센터 서초구 위탁운영체 공모에 온누리복지재단을 비롯한 유수의 5개 기관이 경합을 벌였다. 법인 평가 및 운영계획 등에서 두각을 나타낸 온누리복지재단이 최종 위탁운영체로 선정되었다. 위탁 기간은 3년이다.

온누리복지재단은 서초50플러스센터와 인접한 산하시설 서초노티나무쉼터를 함께 운영하면서 교회 내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한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고, 보다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노후준비 지원체계 및 서비스를 구축할 계획이다.

온누리복지재단 측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웃 사랑을 바르게 실천하는 복지사회의 모델로서 하나님께 더욱 영광 올려드리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문의: 02-3215-3411

/ 정현주 기자 joo@onnuri.org

두란노문고

'스탬프 팡팡' 이벤트

두란노문고 서빙고점과 양재점에서 올해 12월 31일까지 '스탬프 팡팡' 이벤트를 실시한다. 두란노문고에서 판매하고 있는 도서, 음반, 문구류 중에서 1만 원 이상을 구매하면 스탬프 1개를 제공한다. 스탬프 6개를 모으면 10% 할인, 스탬프 12개를 모으면 10% 할인 및 포인트 5%를 적립해준다. 일부품목은 이번 스탬프 팡팡 이벤트에서 제외된다.

문의: 서빙고점 02-796-2310

양재점 02-573-4704

온누리신문 취재기자 모집

온누리신문사 취재기자를 모집한다. 대상은 문서사역에 헌신할 성도로 경력자를 우대한다. 서류는 이력서, 자기소개서, 기명기사, 최종학력증명서이다. 이메일 접수(khj@onnuri.org). 문의: 02-6959-0001

창조신앙스쿨 수강생 모집

9월 7일~10월 5일, 온라인 강의

창조신앙스쿨 수강생을 모집한다. 9월 7일(월)부터 10월 5일(월)까지 5주 동안 매주 월요일 오후 8시에 온라인 강의(Zoom)로 진행된다.

창조신앙스쿨에서는 창조신앙은 무엇인가, 노아홍수 사건과 화석과 지층, 기원의 문제 및 진화론 바로

알기, 지구와 우주, 패러다임과 영적전쟁 등을 주제로 강의가 이어진다. 회비는 무료다. 교재와 필독서는 구매해야 한다. 수강신청은 아이스쿨에서 하면 된다.

문의: 010-7292-2349

결혼예비학교 222기 참가자 모집

9월 12일~9월 26일, 온라인강의

결혼예비학교 222기 참가자를 모집한다. 9월 12일(토)부터 9월 26일(토)까지 3주 동안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강의 동영상은 주차별로 7일 동안 두란노바이블칼리지 홈페이지(www.duranno.com/biblecollege)에 게시된다. 각 주차에 맞춰 수강해야 한다. 커플이 같은 장소에서 함께 수강해야 한다.

결혼예비학교 222기에서는 '결혼의 성경적 가르침', '너와 나, 다름의 축복', '신혼, 재정의 첫걸음', '하나 됨의 비밀, 성', '건강한 자아상 만들기' 등을 주제로 강의가 이어진다.

참가신청은 8월 18일 오전 10시부터 선착순(160명) 마감한다. 회비는 15만 원. 문의: 02-2078-3263

미등록교인 하반기 예배당 예배 예약

아이스쿨 회원가입 하거나 일회성 바코드 발급

미등록교인도 온누리교회 예배당 예배를 드릴 수 있다. 아이스쿨 회원가입을 하거나 일회성 바코드를 발급받은 다음 온누리교회 홈페이지에서 예배예약시스템을 이용하면 된다.

아이스쿨 회원가입은 아이스쿨 홈페이지(schoolionnuri.org/school)나 아이스쿨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서 할 수 있다.

일회성 바코드 발급은 온누리교

회 홈페이지(www.onnuri.org)에서 예배예약시스템을 이용하거나 각 캠퍼스 임시행정실에서 발급받으면 된다. 온누리교회 예배예약시스템에서는 온누리교회 국내 10개 캠퍼스 성인 및 대학청년부 주일예배와 안산M센터 주

일 및 주중예배 등을 예약할 수 있다.

/ 김영선 기자



CGNTV 시청후기 공모전

8월 28일까지 글과 영상 제출

CGNTV 개국 15주년을 맞아 실시하고 있는 '시청후기 공모전'이 8월 28일까지 이어진다. CGNTV 시청하면서 받은 은혜와 감동을 나눌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CGNTV를 시청하면서 느낀 감사와 회복이야기, 선교지에서 받은 은혜 등을 주제로 A4용지 1~2장 분량의 원고나 2~3분 내외의 영상을 제작해서 CGNTV 홈페이지(www.cgntv.net)에 제출하면 된다. 시청후기 양식을 내려 받아 작성하면 된다. 20여 편의 수상작을 선정해서 스마트폰, TV, 백화점 상품권 등의 상품을 준다.

문의: 02-3275-9518



말라위 포스트 마쉴라니 마을 다리 준공

NGO 더멋진세상과 3개 마을 주민들 참여

NGO 더멋진세상이 지난 6월 26일 아프리카 말라위 포스트 마쉴라니 마을 다리를 준공했다. 이번에 준공한 다리 덕분에 아프리카 말라위 포스트 마쉴라니, 간디오, 말랑가 마을 주민들이 시장과 보건소가 있는 지역을 더 빠르고,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게 됐다.

이번 다리 준공에는 NGO 더멋진 세상과 함께 포스트 마쉴라니, 간디오, 말랑가 마을 주민들이 직접 참

여해서 더욱 뜻 깊었다.

이석열 선교사는 "다리가 완공되면서 걸어서 이동하는 거리가 1시간 정도 절약됐다"면서 "마을 주민들의 경제활동 활성화와 건강증진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NGO 더멋진세상은 말라위 포스트 마쉴라니 마을에서 농장과 주택개조사업도 이어나갈 예정이다.

/ 김영선 기자 k4458@onnuri.org

재정국 선임간사 모집

온누리교회 재정국에서 선임간사를 모집한다.

대상은 은행 및 회계 업무에 능통하거나 기업재무관리 경력이 있는 온누리교회 등록교인이다. 이력서와 자기소개서(신앙간증문 포함)를 구비해 이메일(shine8902@onnuri.org)로 보내면 된다.

문의: 02-3215-3219

크리스천의 재정관리

투자와 투기 구별하고, 원칙을 지켜라!

절제심 갖고, 여유자금으로, 장기적으로 투자해야



이주호 팀장
(결혼예비학교
재정강사)

최근 라임자산운용과 옵티머스자산운용, 젠투파트너스 등 사모펀드 운용사들이 하루가 멀다 하고 사고를 내고 있다. 투자 피해 금액이 적게는 5천억 원, 많게는 1조 6천억 원에 달할 정도로 상상

규모다. 이들이 행했던 방법은 조금씩 다르지만 근본적인 수법은 비슷하다. 횡령과 금융사기 방법으로 기존에 투자했던 고객들의 투자금을 돌려줄 수 없게 되니, 신규 투자자들의 투자금을 받아서 기존 고객들에게 수익금과 함께 돌려주는 이른바 돌려막기 수법을 쓴 것이다. 모 자산운용사는 아예 처음부터 투자상품설명서와 계약서를 거짓으로 작성해놓고 고객들에게 투자금을 모집해온 것으로 밝혀져 금융권의 도덕적 해이에 대한 충격을 더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크리스천들은 어떻게 받아들이야 하고, 더 나아가 크리스천들은 투자에 대해서 어떠한 가치관을 가져야 하는지 생각해볼 시간을 가졌으면 한다.

주식이나 펀드 투자 그 자체는 전혀 나쁜 행위가 아니다

먼저 투자가 ‘좋다, 나쁘다’를 논하기 전에 투자와 투기의 차이점을 정확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 워렌 버핏(Warren Buffett)의 스승이자 현대투자기법을 창시한 벤자민 그레이엄(Benjamin Graham)의 저서인 <현명한 투자자>에서 투자와 투기의 개념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

“투자는 철저한 분석 하에서 원금의 안전과 적절한 수익을 보장하는 것이고,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행위는 투기다.”

주식과 펀드 같은 원금손실 가능성이 있는 상품에 투자할 때는 투자 이전에 먼저 철저한 분석을 해야 한다. 워렌 버핏의 투자 원칙인 “절대 원금을 잃지 않는다”는 원금의 안전을 추구할 수 있어야 하고, 더 나아가 투자형 상품의 가입목적인 물가상승률 이상의 수익률도 기대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원칙들이 지켜진 상태에서 주식과 펀드를 산다면 이는 투자이고, 그렇지 않으면 투기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주식과 펀드를 사기 전에 그 기업에 대한 철저한 분석(기업의 재무 건전성, 비전, CEO의 경영철학, 기업의 역사 등)과 상품구조에 대한 이해, 간접투자 상품인 경우 펀드매니저에 대한 이해까지도

파악하지 않았다면 그러한 행위는 수익이 나서 이익을 본 것과는 별도로 실패한 투자 즉, 투기에 가깝다고 봐야 한다.

크리스천 부부들과 기업체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세미나를 진행할 때면 내 집 마련과 함께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이 주식(펀드) 같은 투자형 상품에 대한 문의다. “주식(펀드)에 투자하는 게 맞는 것인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에서부터 “어떤 종목에 투자하면 좋은가?”라는 구체적인 질문까지 수많은 문의가 강의 이후 나의 이메일을 가득 채운다. 앞

문에 대부분 그대로 두고 기본적인 관리만 한다. 그래서 워렌 버핏은 주식으로 돈을 버는 것을 성격 급한 사람들의 주머니에서 느긋한 사람들의 주머니로 돈을 옮겨오는 과정으로 비유했는지도 모르겠다. 공부하지 않고서는 절대 시장을 이길 수 없다.

투자의 가장 중요한 덕목

시골의사 박경철은 그의 책 <시골의사의 주식투자란 무엇인가?>에서 주식투자자들



주식이나 펀드에 투자하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니다.
다만 투자와 투기를 분별하고, 원칙을 지켜야 한다.
절제심 갖고, 여유자금으로, 장기적으로 투자해야 한다.

에서도 설명했듯이 투기의 목적을 가지고 주식이나 펀드에 투자하지 않는 한 주식이나 펀드 투자 그 자체는 전혀 나쁜 행위가 아니다. 오랫동안 묵혀두면 제 맛을 내는 장맛처럼 성장가능성이 높은 유망한 주식이나 펀드를 골라 산 이후 오랫동안 묵혀두면 깊은 장맛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투자의 귀재 워렌 버핏은 “10년을 보유할 주식 아니면 단 10분도 보유하지 마라”는 유명한 말을 했다. 본인이 투자할 종목을 철저하게 분석하고, 투자했다면 대내외적으로 그 기업의 가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큰일이 벌어지지 않는 이상 주식시장이 오르락내리락 하건 말건 크게 관여하지 않는 것이다. 시간이 지나면 우상향할 것을 믿고 가만히 내버려두는 것이다. 시골에서 장을 담그고 나서 하루에도 몇 번씩 장독대에 가서 장이 잘 발효되고 있는지 보려고 장독대 뚜껑을 여는 사람은 없다.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발효될 것이고, 장맛은 깊어질 것을 믿기 때

의 근자감(근거 없는 자신감)을 단적으로 비꼬고 있다.

“사람들은 바둑을 열심히 배운다고 해서 누구나 이창호나 조훈현 같은 최강 고수가 되는 것이 아님을 알고 있고, 아침마다 조깅을 하고 마라톤 대회에서 완주한다고 해서 황영조나 이봉주가 될 수 없는 것 또한 잘 알고 있다. 그런데 워렌 버핏은 될 수 있다고 믿는다. 이것이 주식시장의 아이러니다.”

가치투자를 창시한 벤자민 그레이엄도 한때 주식투자의 실패자였고, 주식차트를 통해 수익을 예측하는 기술적 분석을 만들어낸 조셉 그랜빌도 말년에 자신이 주식투자 실패자임을 시인했다. 최근 워렌 버핏 역시 코로나19로 인한 항공수요 급감으로 미 항공주들을 대량 손절하면서 우리 돈으로 68조에 이르는 큰 손실을 봤다. 투자의 대가들도 한순간에 어마어마한 투자금을 잃을 수도 있는 게 투자다. 직접투자를 하든, 펀드매니저에게 운용을 맡기는 간접투자를 하든

본인이 투자하기로 결심했으면 선불리 조금하게 주식시장이라는 거대한 공룡과 맞서지 말라고 꼭 조언하고 싶다. 전 세계 주식시장에서 지난 수십 년 동안 평균 20% 이상 수익을 낸 사람은 아무도 없다.

주식차트를 하루에도 몇 번씩 쳐다보지 않을만한 충분한 절제력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매월 소득의 10% 정도에서 장기적으로 투자한다는 마음으로 투자를 바라볼 필요가 있다. 그래야 주가 폭선에 인생사 굴곡을 반영하는 일도, 평생 모은 전 재산을 주식시장에 갖다 바치는 일도 사라질 것이다.

또 하나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데 사람의 마음 즉, 심리적인 부분이다. 고객과의 재무상담 이전에 가장 먼저 하는 것이 투자 성향을 파악하는 일이다. 어떤 고객은 원금을 절대 잃어서는 안 된다는 고객이 있을 것이고, 또 어떤 고객은 반대로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큰 수익을 희망하는 고객도 있다. 자신의 투자성향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에 맞게끔 투자상품을 선택할 필요가 있다. ‘저 위험 저수익’을 원한다면 당연히 채권편입 비율이 높은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나올 것이고, ‘고 위험 고수익’을 원하면 주식편입 비율이 높은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심리적으로 안정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투자는 반드시 생활비와 같은 필수자금이 아니라 여유자금에서 하는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한때 가상화폐 열풍이 불었을 때 담보대출을 받아서 수익원을 투자했다가 정부의 규제로 반토막이 되어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가정이 파탄나는 뉴스를 심심찮게 봤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최근 ‘동학개미’라는 신조어를 내며 개인투자자들이 대출을 받아 주식투자를 하는 규모가 늘어나면서 대출액이 11조 원을 넘어섰다고 한다. 이러한 사람들은 하루빨리 대출원금과 이자를 갚아야 한다는 조바심으로 단타매매를 할 수밖에 없다. 단언컨대 이러한 행위는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조금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따름이니라”(잠 21:5)는 말씀처럼 투자가 아님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그 마지막이 절제다. 투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덕목이 아닐까 싶다. 항상 평온한 마음을 가지고, 여유자금으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위에 언급한 원칙들을 지키면서 투자를 한다면 달란트 비유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재정을 불러 주인에게 칭찬받았던 종처럼 될 수 있지 않을까 싶다. 투자로 얻은 배당소득과 같은 수익에 대해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십일조와 기타 헌금을 구별해서 드린다면 이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실까.

■ 에스라 프로젝트 참가자의 다짐



/ 김재진 형제(J4U공동체)

이 시대의 에스라가 되기를!

부모님 손을 잡고 주일학교를 다니던 아이 때부터 청년부 생활을 하고 있는 지금까지 아 웃리지 않는 여름은 이번이 처음이다. 언제 개학하고 등교를 할지 몰라 매일 책가방을 메고 잤던 어느 8살 아이의 뉴스처럼, 금세 모든 것이 정상화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감을 품고 있는 사이 어느덧 2020년 절반이 지나갔다.

에스라 프로젝트를 시작한다는 소식을 들었다. 어린 시절 팔만대장경을 보면서 성경도 저렇게 쓰고 싶다고 생각했었다. 팔만대장경 필사자는 한 글자를 새길 때마다 세 번씩 절을 했다고 한다. 1억 5천만 번이 넘는 횟수다. 초기 성경을 필사했던 이들 또한 140단어를 쓰는데 2시간가량을 들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들은 그 필사과정 자체를 예배로 드렸다고 한다.

에스라 프로젝트를 처음에는 쉽게 생각했다가 틀린 글자 덕분에 벌써 몇 장의 필사지를 버려보니까 저절로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마음에 새겨진다. 필사의 시간들 속에 더 큰 기쁨과 은혜가 있을 것이 기대된다.

에스라는 70년 포로생활 이후 말씀에 무지한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신 인

물이다. 그렇기에 에스라의 말씀 연구는 그 백성들과 시대를 향한 아픈 마음을 담고 있다. 지금도 동일하다. 세상이 이토록 어지럽고 교회가 생명력을 잃어가도 언제나 하나님은 당신의 일꾼을 준비시키신다.

“그러니 너희 마음에 사람이 자기 아들을 훈련하듯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훈련하시는 것을 알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와 길로 걷고 그분을 경외하며 그분의 명령을 지키라”(신 8:5-6).

하나님의 청년들이 여호와와 길로 걷고, 그분을 경외하며,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말씀훈련을 거쳐야 한다. 이상준 목사님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기 위해 산을 올라가고 있을 때 이미 반대편 산에서는 하나님이 보내신 양 한 마리가 올라가고 있었다”는 설교를 하신 적이 있다. 코로나19로 혼란스러운 세상 반대편에서 하나님이 어떤 그림을 그리고 계신지 기대된다. 이제부터 준비해야 할 것은 그 그림을 보는 관점을 가질 수 있도록 온전히 말씀 안으로 파고드는 것이다. 모든 청년들이 말씀으로 하나 된 이 시대의 에스라가 되기를 기도한다. 이 모든 시간을 허락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린다.

■ 남대문희망공동체 봉사자 간증



/ 이연주 자매(분당B공동체)

마르지 않는 기름처럼

남대문희망공동체는 서울역 인근 동자동 쪽방촌 주민들을 섬기고 있는 사회선교부 소속 사역팀이다. 재작년에는 이 사역을 계속할 수 있을까 걱정했을 정도로 남대문희망공동체 재정이 참으로 열악했었다. 그러나 예산도 풍성히 채워지고, 담당목사님과 장로님도 세워지셨다. 하나님께서 쪽방촌 주민들을 사랑하시는 마음이 특별하신 것 같아 감사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따르려는 교회와 성도들 덕분에이라고 생각한다. 특별히 헌금 봉투에 ‘희망공동체-남대문’이라고 목적헌금을 적어서 내주시는 분, 수소문해서 후원금을 보내주시는 분, 자신이 받은 것이 많아 나눠야 한다면 기부하는 청년 등 마르지 않는 기름처럼 사랑이 이어졌다. 올해는 공감소비운동 캠페인 덕분에 서울역 노숙자들에게 도시락 나눠까지 할 수 있었다.

코로나19로 인해 남대문희망공동체 예배처소가 문을 닫았다. 동자동 쪽방촌 주민들을 찾아가 섬기는 대면사역도 중단되었다. 우리는 눈을 돌려 서울역 노숙자들을 찾아가 도시락을 나눠주기로 했다. 매주 주일마다 수많은 노숙자들이 서울역 피약별 아래 긴 줄을 서서 기다렸다가 도시락과 물 한 병을 받고 흩어져

갔다. 그들을 보면서 ‘우리가 잘 하고 있는 건가? 이게 최선인가?’ 하는 고민도 해보았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마음으로 섬기려고 기도하고 노력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진흙에 생기를 불어넣자 사람이 생명이 되었듯이 쪽방촌 주민들과 노숙자들에게 말씀이 들어가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로 살게 하는 일이 눈에 보이면 좋겠는데 그게 참 쉽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려운 일을 담당하시는 순장님들께 참으로 감사하다. 리더십들의 가르침과 기도, 헌신을 통해 남대문희망공동체 사역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

“사랑만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며 선뜻 사재(私財)를 터는 서성렬 장로님, 다른 좋다는 것들을 내려놓고 남대문희망공동체로 오셔서 수고하는 팀장님, 젊음의 때에 다른 곳에 눈 돌리지 않고 이들을 도우려는 청년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수고하는 남대문희망공동체 봉사자 한 명 한명의 헌신이 참으로 귀할 뿐이다. 느리고 더디지만 가능성을 보시는 하나님처럼 인적, 물적, 영적 지원을 아끼지 않는 온누리교회의 사랑이 남대문희망공동체를 통해 퍼져 나가기를 기도한다.

■ 에스라 프로젝트 참가 간증



/ 이영진 자매(W공동체)

사람은 말씀으로 살아간다!

“그분이 너희를 낮추시고 배고프게 하셔서 너희나 너희 조상들이 전혀 알지 못했던 만나로 먹이신 것은 너희로 겸손하게 해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임을 가르쳐 주시려는 것이었다”(신 8:3).

코로나19는 내 삶의 많은 부분을 바꿨다. 교회와 직장, 관계에 이르기까지 나를 둘러싼 많은 부분에서 변화가 생겼다. 또한 코로나19를 통해 인간의 연약함을 새삼 깨닫게 되었다. 인간의 지식과 기술이 신을 대체할 것처럼 떠들썩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바이러스 하나에도 그동안 쌓아놓은 많은 것들이 휘청하는 모습을 보며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을 경외하며, 그분의 말씀을 좇아 사는 삶이 단순하지만 가장 인간답고 행복한 일이라는 것을 깨닫는다. 그래서 매일의 삶 속에서 더욱 주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고 싶었다. 그런 의미에서 온누리교회 모든 성도들이 함께하는 에스라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되어 감사한 마음이 들었다.

필사지를 받아들고 필사가이드를 꼼꼼히

읽어가며 필사를 시작했는데 첫 문장부터 잘못 써서 다시. 마음을 가다듬고 심호흡을 해가며 한 단어 한 단어 쓰다가 결국 마침표를 잘못 쓰는 바람에 또 다시. 이제는 마침표 하나까지도 성경과 꼼꼼하게 대조하며 숨죽여 쓰고 있다. 마치 인쇄활자가 없었던 시대 후대에 남길 기록을 쓰는 것 마냥 비장한 마음으로 써내려간다. 내가 이렇게까지 숨죽여 성경을 읽고 썼던 적이 있었던가. 새로운 경험이다. 이전 같았으면 흘렁흘렁 넘어갔을 말씀 속 단어 하나하나에도 눈길이 오래 머문다. 말씀을 조금 더 곱씹게 된다.

코로나19로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를 더욱 낮추시고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음에 감사하다.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임을 알려주셔서 감사하다. 에스라 프로젝트를 통해서 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써내려가며,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더욱 알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한다. 하나님의 마음과 말씀대로 삶에서도 순종의 열매를 맺기를 소망해본다.

■ 온라인 큐티스쿨 참가자 간증



/ 손금미 성도(서초A공동체)

“너는 그리스도인이다”

어느 날부터 큐티가 조금 부담스러워졌다. 매일 성경말씀을 묵상하는 단계까지는 좋은데 적용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혼란스러웠다.

어떻게 해야 할지 갈팡질팡 하는 시간이 길어지면서부터 큐티책을 펴기가 부담이 됐다. 삶에 말씀을 제대로 적용하지 못하는 것에 마음이 무거웠다. 그런데 이번 온라인 큐티스쿨 강의를 들으면서 큐티를 하고 난 후 적용을 할 때 어떻게 해야 할지 방향성이 보이기 시작했다.

그 말씀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았다. 목사님의 말씀을 곱씹으며 생각해보니 나는 이런 저런 핑계를 대며 내가 사랑해야 할 사람들을 사랑하지 못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지난 겨울, 내가 심각하게 고민하며 기도했던 것이 있다. 나의 정체성이다. 도대체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죄를 멀리하고 살 수 있을지 늘 고민했다.

그리스도인이지만 또한 엄마, 아내, 딸, 며느리, 여자, 아니면 그냥 손금미?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하는지 갈등이 있었다. 그때그때 튀어

나오는 내 모습은 자기의 자아를 계속 주장하고 그리스도인인 정체성에게 순종하기를 싫어했기 때문이다. 몇 달 동안 답답한 마음으로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말씀해주셨다.

그 말씀을 듣는 순간 내 마음에 넘치는 평강과 감사가 이루어 말할 수 없었다. 처음 듣는 말씀이 아닌데도 내가 살아야 할 큰 방향을 새롭게 알게 해주신 사건이었다.

그리스도인이면서 엄마로도, 아내로도, 딸로도, 여자로도, 손금미로도 할 수 없었던 일이 오직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가능하게 되었다. 그리스도인이라 내가 하나라도 세상사람들과 다르게 구별된 생각과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주의 은혜를 먼저 받은 자로서, 주인에게 빛을 탕감 받은 자로서, 아버지의 환영을 받으며 돌아온 탕자로서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있는 그대로 행하기를 간절히 원한다. 나는 할 수 없으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힘입어 주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결단한다.

장로칼럼

권사칼럼

그리스도인의 위대한 사명 ‘축복하기’

박일환 장로
(양천공동체)

올해 초 요셉공동체 리더십 특강을 요청 받았다. 평소 요셉공동체 멘토로 활동하면서 청년들과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있지만, 리더십 특강에서 무슨 이야기를 들려주면 좋을지 고민이 많았다. 고민 끝에 내가 선택한 강의 주제는 ‘언어’였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며 사용하는 언어가 얼마나 중요한지, 언어로 공동체를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지 청년들에게 전해주고 싶었다. 강의가 끝나고 캐린 순장이 나를 찾아와 작은 책을 선물로 건네주었다. 가족에게서 받았다는 그 책은 리차드 브런튼의 <The awesome power of blessing(축복의 놀라운 능력)>이었다.

손바닥만 한 크기의 얇은 책 내용이 굉장히 감동적이고 도전적이었다. 개인적으로 좋은 책에 대한 분명한 기준이 있는데 ‘나에게 새로운 관점을 주는가’이다. 그 작은 책이 그랬다. 나의 관점을 바꾸어 놓았다. 그리스도인의 위대한 사명은 ‘축복하기’라는 새로운 관점을 제시해주었다.

하종호 목사님은 교회가 이 시대의 유일한 대안이며, 희망이라는 말씀을 참 많이 하셨다. 그 말씀에 고개를 백 년 끄덕였으나 과연 어떻게 ‘그 교회’가 될 수 있을지 늘 의문이었다. 그런데 이 책에서 그 의문에 대한 답을 명쾌하게 주고 있다.

정치, 사회, 경제, 문화, 교육 모든 분야에서 우리는 지금 위기의 때가 왔음을 알고 있다. SNS와 미디어는 비난과 정죄, 이념과 주장, 분열과 투쟁, 정의와 심판의 언어들로 상대를 무너뜨리고 있다. 갈등과 반목의 시대 속에서 교

회인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일까? 우리의 입에서 나가는 언어가 곧 우리이며, 정체성이다. 이 책은 우리가 왜 축복의 언어로 말해야 하며, 어떻게 축복하기를 해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준다. 우리가 진심으로 축복하기를 실천할 때 교회가 세상과 다름을 인정하게 될 것이다.

원문으로 된 책을 읽고 아내에게 그 내용을 설명해줬다. 혼자 알고 있기에는 너무 아쉬웠기 때문이다. 이 책의 메시지를 들은 아내는 자신도 읽을 수 있도록 한국어로 번역해달라고 했다. 번역본을 읽은 아내가 이 책을 한국어본으로 출간하자고 제안했다. 우리만 읽고 끝내기에는 너무 이기적이라고 했다. 더 많은 크리스천들과 이 책의 내용을 나눠야 한다고 권면했다.

나는 번역이나 출판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저자에게 무작정 메일을 보내 한국어 출간에 대해 문의했다. 큰 기대를 하지 않았는데 얼마 후 답장이 왔다. 내 번역본에 대해 의심이나 수정 없이 그대로 출간하자는 내용이었다. 더군다나 한국에서 초판을 인쇄하고 제본하는 비용까지 저자가 모두 후원했다. 나를 알지도 못하는 저자가 무엇을 믿고 허락을 했는지 아직도 놀랍기만 하다. <축복의 놀라운 능력>으로 들어오는 모든 수익금은 더 많은 크리스천들을 위해 재판 인쇄에 사용될 것이다.

짧은 시간에 초판이 나오게 된 것이 내게는 ‘축복의 놀라운 능력’의 경험이다. 캐린의 갑작스러운 선물, 요셉공동체 만석 형제와 진수 형제의 헌신, 아내의 권면, 저자 리차드의 신뢰와 빠른 결정이 합쳐져 만들어진 하나님의 작품이다.

나의 서툰 번역이 저자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훼손하지 않고 많은 분들에게 전할 수 있기를 바란다. 교회가 이 시대의 유일한 대안이며 희망인 것을 ‘축복하기’ 실천을 통해 우리는 보게 될 것이다

한은경 권사
(일산공동체)

누군가에게는 전 투복이었고, 누군가에게는 깃발이었던 분홍색 블라우스! 그 분홍색 블라우스가 처음에는 부담스러움으로 다가왔지만 어느새 내게는 자랑스러움이 되었고, 다른 이들에게는 따뜻함이 되었다. 이 옷을 입고 전국을 누비며 하나님의 사랑과 어머니로 살아가야 할 방향을 가르쳐주던 날들을 돌아보니 꽤 많은 시간이 흘러있었다.

몇 달 전 일본에서 코로나19로 미뤄졌던 어머니학교 ‘HAPPY MOM(이하 해피맘)’ 수료식을 온라인으로 진행한다는 연락을 받았다. 목사님께서 나에게 해피맘 온라인 수료식에 참가해달고 연락을 주셨다. 일본은 코로나19 영향뿐만 아니라 나라 자체적으로도 선교가 힘든 곳이다. 많은 선교사님들이 들어가 계시지만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정말 많다. 이번에 내게 연락을 주신 목사님의 상황도 만만치 않다.

동경에 계신 목사님은 교회를 개척한지 10년이 다 되어 가는데 성도가 6명 정도에서 오르락내리락 한다며 힘들어 하셨다. 사모님도 너무 힘들어서 우울증에 걸릴 지경이었다. 그런데 일본에서 진행했던 어머니학교를 수료하면서 회복을 경험하셨다. 후속 프로그램으로 진행된 해피맘을 통해서도 큰 회복과 많은 변화를 경험했다고 하셨다. 또한 해피맘에 함께 참여했던 10명이 넘는 일본 여성들이 이곳저곳에서 자신의 삶을 나누고, 격려하고 받으며, 세상에 돌도 없는 행복한 얼굴로 살아가고 있다고 전해주셨다. 이와

같은 경험을 하신 그 목사님께서서는 어머니학교의 열렬한 후원자가 되어주셨다. 해피맘이 일본 곳곳에서 이뤄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일본 선교의 새로운 길을 열어 주셨다”며 무척 기뻐하시고, 신이 나셨다.

기쁜 소식들도 잠시, 코로나19로 인해 모든 사역이 일시에 멈춰졌다. 세계 47개국 250여 개 도시에서도 마찬가지로 모든 일정이 취소되고, 움직이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다. 어머니학교 본부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자 모여서 기도하고, 또 흠어져 기도했다. 모든 것이 멈춘 듯 보이던 때에도 각 지역에서 소그룹 모임이 진행되고 있었다. 국내 각 지역은 물론이고 중국, 일본, 미얀마, 코타키나발루 등 해외에서도 기도모임을 하고 성경을 읽고, 서로 격려하며 힘을 얻고 있었다. 코로나19의 영향이 크지 않던 다른 국가에서도 소그룹 활동을 금지시키면서 이제는 온라인 모임을 만들어 서로 마음을 나누고 교제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있다.

어머니학교 본부는 더 많은 사람들과 소통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자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고 온라인으로 소통하고 있다. 코로나19 이후 상황을 바라보며 새로운 길을 모색하고 있다. 위기는 위험과 기회의 합성어다. 우리는 이번 코로나19 상황을 기회 삼아 급변하는 이 시대에 맞는 새로운 프로그램이 만들어지기를 기대한다. 사랑하는 어머니학교 스태프들의 결단이 모두의 결단으로 이어질 것이라 믿는다.

늘 어머니학교 사역이 있는 날이면 새벽처럼 일어나 비장하게 챙겨 입던 분홍색 블라우스가 옷장에 걸린 채 빛을 보지 못하고 있다. 이제는 마음속으로 그 옷을 꺼내 입는다. 그리고 함께 울고 웃으며 삶을 나누었던 모든 분들을 찾아가려 한다.

주님! 제가 어머니입니다!

신앙에세이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 소중한 백성

박성천 목사
(김포공동체, 새사람사역팀)

며칠 전 월요일. 아내와 함께 집 청소를 했다. 이날 청소의 메인 미션은 시든 화초들과 화분을 정리하는 것이었다. 집에 화분 놓을 공간이 부족해서 버리기로 걱정했다. 화분들을 정리하면서 ‘이상하게 우리 집에는 화초들은 금세 시드는 것 같네’라고 의아해하며 정리 및 청소를 했다. 원래 계획으로는 흙과 시든 화초들을 멀리 공터로 가져가서 버리는 거였다. 문제는 화분이었다. 어떻게 처분해야 할까, 고민하며 일단 엘리베이터로 1층으로 가져 왔고, 다시 자동차로 화분들을 하나둘씩 옮겼다. 그 모습을 아파트를 청소하시는 미화원 여사님이 지

켜보시더니 내게 물으셨다.

“그 예쁜 화분들을 다 치우시는 건가요?”

저는 얼떨결에 이렇게 대답했다.

“예. 시들어버린 화초랑 화분을 어떻게 버려야 할지 고민 중이에요.”

그 여사님께서 환히 웃으시며 말씀하셨다.

“저에게 필요해요. 예쁘고 근사한 것들은 전부 저에게 주세요!”

그 여사님과 대화를 하면서 문득 예전에 보았던 책 문구가 생각났다.

“누군가에게 쓰레기는, 누군가에게는 희망입니다.”

대전역에서 노숙자 섬김 사역을 하시는 어느 목사님이 쓰신 책이었다. 그 책을 읽으면서 참 인상 깊어서 마음에 깊이 새겼던 문구였다.

나에게 그 화분들은 더 이상 필요 없고, 처분하기도 귀찮은 쓰레기에 불과했다. 그러나 미화원 여사님의 눈에는 예쁘고, 소중하고, 필요한 물건이었다. 마찬가지로 길거리에 버려진

병들과 박스가 우리에게만 쓰레기이지만, 그 쓰레기가 노숙자들에게는 소중한 희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안다. 방치된 인생인 노숙자들도 하늘 아버지에게는 소중한 자녀요, 존귀한 존재임을 깨닫게 하셨다.

새사람사역팀을 담당하게 되면서 주셨던 첫 마음이 있었다.

“죄인들을 찾아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재소자들을 찾아 전국 10개 교도소로 가게 하시는 하나님.”

교도소는 장소의 특성 때문에 찾아가기가 쉽지 않다. 재소자들에게 설교와 일대일제자양육, 큐티를 나누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다. 그런데 돌이켜 생각해보면 사실 그 자리에 앉아 있어야 하는 자가 바로 나였다. 나는 용서받을 수 없는 무기수였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죄인 중에 죄수였다. 새사람사역팀 모두는 그 자리에 있어야 할 자들이었음을 알기에 전국 어느 죄인 교도소에서 요청이 와도 기꺼이 달

려간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롬 5:8).

요즘은 코로나19로 인해 교도소 안에 많은 봉사자들이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설교자와 대표기도자 두세 명이 들어가 예배드릴 수 있는 것만 해도 은혜 중의 은혜라고 생각하고 새사람사역에 임하고 있다.

이미 교도소에서는 ‘주의 날’의 개념이 성경적인 가치로 자리잡은 지 오래다. 교도관들이 일요일에 휴무인 관계로 어느 교도소는 수요 주일예배로 드리기도 하고, 또 어느 곳은 목요일 주일예배로 드린다. 요일은 다르지만 죄인들이 모인 그곳에서 드리는 예배의 감격은 어느 교회 못지않다. 아니 더 간절하다. 그들이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요, 소중한 백성들이다.



우리 가정이 작은 교회가 됩니다
행복한 가정을 위한 가정예배,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방송시간 매주 주일 오후 8시 10분

가정예배 서약서

우리 가정이 또 하나의 작은 교회로 세워지고
가정의 예배가 회복되기 위해 **아무리 바빠도 가정예배**를 지키며
실천할 것을 하나님 앞에 서약합니다.

하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정이 되겠습니다.
둘, 날마다 말씀을 따라 사는 가정이 되겠습니다.
셋, 아무리 바빠도 가정예배 시간을 지키겠습니다.

위의 서약 내용을 지키며 예배하는 하나님의 가정이 될 것을 서약합니다.

 가족들과 함께 가정예배를 약속하세요!

가족대표 _____

다시보기

CGNTV
웹사이트



CGNTV
유튜브 채널



CGNTV 정기후원

[하나은행 573-910002-67804] **ARS** 060-705-0000 문의 02-796-2243